

速記學

國會速記士養成所

社團大韓速記協會

국민교육현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업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 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중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평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질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기리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공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술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머 리 말

이 책은 국회속기사양성소의 속기학교재로 엮은 것이다.

속기란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자기 의사를 특정의 부호문자로서 언어속도와 일치하여 정확하게 필기하고 일반문자화하는 활동의 총칭이며 이 속기부호를 연구하는 학문이 곧 속기학이다.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의 두뇌가 발달할 수록 발언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어 이미 쓰여지고 있는 속기법식을 가지고는 가속화하는 발언속도에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전되어 새로운 우리나라 의회에 알맞고 쓰기 쉬우며 외우기 쉽고 읽기쉬운 독자적인 속기법식을 창안하기 위하여 국회속기사양성소내에 1968년 5월 20일 의회속기법식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8인의 연구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 1969년 1월 10일 의회속기법식 창안 발표회를 열고 동년부터 국회속기사양성소의 교수법식으로 채택하여 교수중에 있는 속기법식으로서 의회속기법식 연구위원회는 계속 개량연구를 하여 이에 개정판을 발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장차 속기사로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교재로서 여러분이 속기학을 연마하는데는 물론이고 속기사로서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을 엮어내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회속기법식 연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1972. 3.

국회속기사양성소 소장 권효섭

목 차

제 1 장 서 론 (序論)	3
제 1 절 속기의 정의 (定義)	5
제 2 절 속기학의 개념 (概念)	6
제 3 절 속기의 발생 (發生)	17
제 4 절 속기의 약사 (略史)	18
제 5 절 속기의 구성 (構成)	21
제 6 절 속기의 활용 (活用)	23
제 7 절 속기 학습의 자세 (姿勢)	24
제 2 장 기본문자 (基本文字)	27
제 1 절 기본문자각행 (各行)	29
제 2 절 받침	43
제 3 장 변자 (變字) 와 품사 (品詞)	53
제 1 절 변자 (變字) 와 조사 (助詞)	55
1. 변자 (變字)	55
2. 조사 (助詞)	67
제 2 절 위치이용기법 (位置利用記法) 및 수사 (數詞)	85
1. 점 (点) 및 위치 (位置) 이용기법	85

2. 수 사 (數詞)	94
제 3 절 부사 (副詞) 형용사 (形容詞) 동사 (動詞)	
부정사 (否定詞)	103
1. 부 사 (副詞)	103
2. 형 용 사 (形容詞)	116
3. 동사 (動詞)	121
4. 부정사 (否定詞)	133
제 4 장 약자 (略字) 와 약법 (略法)	137
제 1 절 약자 (略字) 와 숙어약자 (熟語略字)	139
1. 약자 (略字)	139
2. 4 숙어 (四熟語) 약자	160
제 2 절 약 법 (略法)	161
1. 끌말약법	161
2. 동행 (同行) 약법	168
3. 연속음 (連續音) 약법	170
4. 동종성 (同終聲) 약법	171
5. 장 선 (長 線) 약법	176
제 3 절 규칙 (規則) 약법 및 전문용어 (專門用語) 약법	193
1. 규칙 (規則) 약법	193
2. 전문용어 (專門用語) 약법	201

제 1 장 서 론 (序論)

제 1 절 속기의 정의(定義)

무형(無形)의 언어를 유형(有形)의 문자로 표착할 수 없는 것을 특정한 부호문자(符号文字)로 언어속도와 일치하게 정확히 필기하여 일반문자화(一般文字化)하는 활동을 속기라 칭한다.

속기의 활용분야를 구분하여 보면 전문직업(專門職業) 속기와 비전문(非專門) 일반속기로 대별(大別) 할 수 있는데 이를 회일적으로 한마디로서 속기의 정의(定義)를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편의상 전문직업속기와 비전문일반속기로 구분하여 속기의 정의를 내리면 전문직업속기란 속기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자기 의사를 특정의 부호문자로서 언어속도와 일치하여 정확하게 필기하고 일반문자화하는 활동의 총칭이며 통상적으로 속기라고 하면 전문직업 속기를 지칭(指稱)한다고 하겠다.

비전문일반속기란 속기를 전문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는 자기 직무의 일부분에 속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절대적인 요건은 불완전한 요점기록(要點記錄)이라 하더라도 속기술에 의한 기록이어야 한다.

그리고 속기방식(速記方式)이란 속기활동에 사용하는 수단을 말하며 이에는 수필속기방식(手筆速記方式)과 기계속기방식(機械速記方式)이 있으며 속기방식에 의하여 속기를 하는 기술을 속기술(速記術) 그 완성된 상태의 것을 속기록(速記錄)이라고 칭한다.

또한 이에 관련하여 속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속기실무(速記實務) 속기실무를 행하는 사람을 속기사(速記士) 속기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속기교육(速記教育) 그리고 속기와 관련된 이상의 모든 부문을 역사적으로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체계화하고 그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연구가 넓은 의미에서 속기학(速記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속기학의 개념(概念)

속기활동에 사용하는 수단을 속기방식이라 하며 이에 의하여 속기를 하는 기술을 속기술이라 한다. 속기 교육에 의하여 속기사를 양성하며 속기사가 실무를 통하여 속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속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속기문화라고 일컬으고 속기와 관련된 이상의 모든 부문을 역사적으로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체계화하고 그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연구함을 속기학이라 할 수 있다. 속기학을 형성하는 내용은 형태론(形態論) 구조론(構造論) 언어론(言語論)으로서 그 근간(根幹)은 속기방식에 관한 형태론과 속기문자 구성에 관한 구조론인 것이다.

속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수필속기방식과 기계속기방식이 있고 기계속기에는 타자속기(打字速記)와 녹음속기(錄音速記)가 있다.

최선(調練)에 의한 수필속기방식을 기술(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1. 형태론 (形態論)

속기방식은 초기시대 (初期時代)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이 있어왔고 현대에 와서는 자연어에 따라 수십 수백종에 이르는 다양각색의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

가. 원시적 형태 (原始的形態)

언어의 보존성 (保存性)과 전달성 (傳達性)을 가진 문자로서는 10분간 2,000 음자 (音字)에서 4,000 음자의 언어속도를 불과 500 ~ 700 음자 밖에 기록 못하게 됨에 단위시간내에 많은 문자를 펼기하고자 시도한 것이 스스로 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초서화 (草書化)하고 성화화 (省劃化)하여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그 자리에서 받아 쓰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 났었다.

거기에서 다시 특수부호문자가 고안되면서 이것이 부호체계속기방식 (符號體系速記方式)의 기원 (起源)을 이루었다.

나. 부호체계속기방식 (符號體系速記方式)

일반적으로 속기라 할 때에는 이 부호체계속기방식에 의한 속기활동을 뜻한다.

최고 (最古)의 속기방식은 고대希臘語用 (古代希臘語用)의 acropolis 式을 들고 있다. 이러한 속기방식은 일반문자의 성립후 그 일반문자를 참고로 해서 그보다 간단한 선으로 짜인 부호의 체계라는 형태로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점차 속기라는 활동이 필요하게 되어 그 수단으로서 속기방식이 고안되고 나아가 점의 이동에 의하여 선을 긋는다는 기

선 속기 방식 (記線速記方式) 의 형태로 완성되어 온 것이다.

다. 속기 방식의 3 대기본요소 (基本要素)

속기 방식이 속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것을 구성하는 속기 문자가 다음과 같은 3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1)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그 속도에 따라 표기 (表記) 할 수 있을 것.

(2) 표기된 것이 후에 일반문자화될 수 있도록 번문 (繙文) 할 수 있을 것.

(3) 이들 속기 문자들이 노력에 의하여 기억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러한 세가지 조건은 일반적으로 「쓰기 쉽고 읽기 쉽고, 의우기 쉬운」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은 어느것이나 서로 상반된 형태로 상관관계 (相關關係) 를 가지고 있다.

가령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쓰기 쉬운 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나 이 점을 좀 무리하면 똑같은 형이 많게 되어 의우기 어렵게 되고 고속도인 경우 흐트려져서 번문하기 어렵게 된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특징이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겠으나 여기에 중점을 두면 선이 복잡하여 쳐서 쓰기 어렵게 되고 종류가 많아져서 의우기 어렵게 된다.

의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선이 상호관련되어 전·체적 으로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안되겠으나 언어 자체가 수학의 원

리와 같이 체계가 정확히 서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 사용에 우리가 생겨 쓰기 어렵고 읽기 어렵게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문자에 어떠한 선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의 연구가 행해지는 한편 그 속기문자의 대상인 언어에 대한 그리고 문자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여기에 맞추어 이를 속기문자를 여하히 체계화하느냐에 대하여 여러가지 법칙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문자의 경우에도 약간 시도되어 왔으나 일반문자의 경우에는 그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 그 문자체계(文字體系)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뗄수가 없었다. 그 진화(進化)는 사실상 지지부진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수다한 문자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대부분 일정시대(一定時代)일종류의 형태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서 속기문자는 여러가지 유파(流派)로 나뉘어 발견되어 왔고 또 1언어에 대하여 수다한 속기방식이 출현되어 성래를 거듭하여 왔다. 물론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그렇듯이 속기문자의 경우도 절대 최선(最善) 최량(最良)이란 있을 수 없으나 이것을 목표로 많은 연구를 하여 개량되고 또 새로이 창안되었다.

『라틴』어의 속기방식이라고 추측되는 「티로」의 약기법(略記法)이 속기술의 효시(嚆矢)라고 보통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일 절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근대어의 속기법식(速記法式)은

영국인 (英國人) 「티모디·브라이트」가 「라틴」어 속기법식을 재검토해서 1588년 「런던」에서 영어속기법이라 하여 발표한 데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후 영어용의 속기법식만 해도 그 수가 3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1882년 (明治 15년) 田鎮綱紀에 의하여 미국의 「그라함」式을 본따 만들어 낸 것이 최초인데 지금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기법식은 무려 70여 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여 종의 속기법식이 발표되어 왔다.

라. 기계속기방식 (機械速記方式)

근대 기계운영의 발전은 손에 의하여 서만 기록이 가능하던 문자의 표기가 「타이프라이터」라는 기계에 의하여 능률적인 표기가 가능케 되어 이것이 속기방식에 까지 이용케 되었으며 사람의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그 원형 (原形)대로 보존 재생시킬 수 있는 녹음기 (錄音機)의 발명은 지금까지는 수필속기방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보조기구 (補助器具)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연구개량의 결과 일부에서는 녹음속기방식으로 사용되기 까지에 이르렀다.

(1) 타자속기 (打字速記)

「타이프라이터」의 원리를 이용한 타자속기는 1827년 불란서인 (仏蘭西人) 「고노」의 「Machine Tachygraphique」가 최초의 것으로 그후 몇사람에 의한 실험을 거쳐 1911년 美國人 「와드스톤·아일랜드」의 「Stenotype」에 이르러 무호체계 속기방식과 겨룰 수 있는 정도의 실용화가 되었다.

(2) 녹음 속기 (錄音速記)

녹음기에 의하여 녹음된 「테이프」를 「스트랫쳐」(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기계)를 써서 적절 일반 문자로 배끼는 기록 방법이다. 전에 미국에서 수필속기와 녹음속기를 경쟁 시켜 비교하였으나 그 결과는 수필속기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한다.

2. 구조론 (構造論)

속기 활동의 기본은 속기문자에 있으며 그 속기문자의 구조가 속기법식으로서 음성학 (音聲學) 그리고 그 나라 문자구성체계 (文字構成體系)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해당 언어문학의 구조와 관련하여 분석 검토하는 연구가 속기학의 기본과제 (基本課題)라고 본다. 속기문자의 구조는 그 기본이 획선체계 (劃線體系)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획선이라 함은 부호 체제속기방식에 있어서 그 속기문자의 형식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소위 「선」 (線)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무한한 종류의 실제 쓰여지고 있는 구체적인 선을 선조 (線條)라 하고 이에 대하여 특히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규제 (規制)되고 있는 유한 (有限)의 이상적 「선」을 획선이라 하여 양자 (兩者)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획선체계라는 입장에서 일반문자를 관찰하면 「로마」字의 필기체 (筆記體)는 사선 (斜線)을 기초로 하여 사용했고 한자 (漢字)의 필기체는 영자팔법 (永字八法)을 기초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대 속기방식은 일반문자를 참고로 간단한 선으로 짜보려고 했기 때문에 일반문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획선을 일용 체제로서 정리하여 거기에

서 찾을 수 있는 제획선(諸割線)을 이용코자한 것이기 때문에 일 반문자들 떠나서 생각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차츰 속기문자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선 중 뇌도록 간단하고 기록편의(記錄便宜)한 선을 배당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일반문자와의 관련을 떠나 독자적인 입장에서 획선체계를 발견하여 그 구성요소로서의 각 획선을 이용하는 편이 편리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획선체계가 발견되어 무호체계 속기방식의 분류(分類)도 여기에서 가능케 되었다.

이를 大別하면 正円派(幾何線派), 斜線派(草書派), 橫円派(半草書派), 文字派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정원파(기하선파)……正円派(幾何線派)

정원파는 사(尺)와 「콤파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기하학적(幾何學的) 선을 이용코자 한 것이기 때문에 기하선파라고도 한다.

즉 정원(正円)을 등분(等分)하여 그 등분된 원의 둘레와 등분한 직선(直線)들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점」(点) 「원」(円) 「타원」(橢圓) 「갈고리」 등의 점획(點劃)을 병용(併用)한다.

그 특징은 각 획선이 기하학적 성질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획선을 용이하게 추출(抽出)해낼 수가 있어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역사적으로는 1720년대에 나타난 「바이옴」式에서 시작, 1837년

「핏트맨」式과 「유프로이」式에 이르러 대성(大成)했다.

우리 나라의 속기법식들은 대부분 이 정원파인 「핏트맨」式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나. 사선파(초서파)……斜線派(草書派)

정원파가 이용 가능한 회선을 추출하여 사용코자 한데 대하여 기록편의한 선 단을 추출하여 사용코자 한 것이 이 사선파이다.

즉 「로마」字의 필기체를 정리하여 우상(右上)의 사선과 좌하(左下)의 사선을 기초로 그 사선의 자두(字頭)나 자미(字尾)에 「갈고리」나 원의 절회를 붙여 정리한 것이다.

그 특징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마」字의 필기 운동을 그대로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단히 쓰기 쉽다는데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로마」字를 상용(常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학습상 오히려 서문심이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802년 Noe式(伊太利) 1808년 Thibierge式(仙蘭西) 등에 의하여 시도되고 1834년 「가렐스버거」式(獨逸)에 이르러 일옹·대성하여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다. 타원파(반 초서파)……橢圓派(半草書派)

정원파 및 사선파에 대해서 이 양자를 결충한 입장에 있는 것이 타원파이다.

타원파는 「콤파스」로 그리는 기하선적인 정원대신 오른손으로 그리는 타원적인 자연원(自然圓)을 사용코자 한 것이다. 즉 수평(水平) 좌하향(左下向), 우상향(右上向) 3종의 직선과 그 각각을 현(弦)으로 하는 자연원 소위 자연선을 선회의 기초로 하여

여기에 원파「갈고리」를 병용하고 있다. 그 특징으로서는 정원파와 같이 각 획선이 일정 기하학적 성질에 의하여 분류됨과 동시에 사선파와 같이 실제로 오른손으로 쓰기 쉬운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원파와 사선파의 각 장점(長點)을 유효하게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원파가 기하선파, 사선파가 초서파라고도 불리는데 타원파를 반초서파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정원파의 계통을 잇는 것이다.

즉 정원파의 획선이 실제로 쓰이는 파형에서 조금씩 시도되어 1886년 「매로우」式(英語) 1888년 「그레그」式(英語) 등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 문자파(文字派)

이 문자파의 획선 체계는 전기(前記)한 세 가지 유파와 그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속기 방식의 발전 과정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원시적인 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문자의 획선을 중요시(重要視) 일반 문자의 초서화 또는 성획화한 것을 그대로 사용교자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로 쓰이는 획선은 다르다. 하더라도 속기 방식의 발전 과정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먼저 나타난 형태다. 구미(歐美)에 있어서 정원파가 나타나기 전의 속기방식은 대부분 이러한 계통이었다.

이 문자파의 특징은 일반 문자의 획선적 보편성을, 기습지식(既習知識)으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고 읽기 쉽다는데 있다.

이런 점이 근대적 획선체계가 발견되어 사용된 이후에도 문자파의 획선체계가 사용되는 매력의 하나이다.

이 문자파는 특히 근년에 이르러 구미쪽에서 소위 「알파벳」속 기법이니 「Speed hand」또는 「Speed writing」이니 하는 이름으로 성행(盛行)되고 있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明治年代에 田 鎮系의 실무자들에 의하여 일부 시도가 되었고 그후로 여기에 근 대적 속기 방식적 요소를 가미한 여러가지 속기법식이 나왔다.

이상 속기문자 구조상으로 본 바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을 약술(略述)하였으나 어느것이 가장 우수한 획선체계를 가진 구조냐 하는점에 이르면 각자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술(前述)한 어떤 유파의 획선체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속기법식의 우열(優劣)이 결정된다기 보다는 기록가능한 획선을 언어구조상의 과학적인 통계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여하히 배열(配列)하느냐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속기 문자구조 연구의 기초로서 획선론(劃線論) 외에 언어론(言語論)이 있어 이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속기문자의 법칙론(法則論)을 생각할 수 있는것도 이때문이다.

3. 언어론(言語論)

언어와 관련하여 속기문자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속기문자상 언어론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종의 설이 있다. 대별하면 표자설(表字說) 표음설(表音說) 표어설(表語說) 표의설(表意說)로 나눌 수 있다.

가. 표자설 (表字說)

표자설은 속기 문자의 형태를 보통 문자가 나타내는 요소와 동일한 것으로 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즉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그대로 일반문자로는 받아쓰기 곤란하므로 속기문자로 받아 쓰자는 것 아니까 속기문자를 일반문자의 대용이면 된다는 설로서 소위 원시적 속기방법 즉 문자파가 이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 표음설 (表音說)

표음설은 근대속기의 대종 (大宗)을 이루고 있는 「펫트맨」式이 취하는 입장으로 음성학적 입장에서 언어의 표음적 원칙에 중점을 두고 속기문자를 구성하자는 사고방식이다.

속기문자를 언어표현마다 모두 표기하므로 예를들어 「가」「카」「까」를 각각 표기하므로 속도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선을 같이 써도 구별하여 읽을 수 있게만 나타내는 즉 「가」「카」「까」는 「가」로만 표기하여서 구별하여 번역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표어설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 표어설 (表語說)

표어설은 표음설 자체의 결함이 점차 일식케 되어 나타난 것으로 속기활동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문자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들리는 것을 음대로 충실히 표기하는것 보다 그 뜻을 이해하면서 받아 쓰는것이 효과적이라는에 결론을 얻어 근대 속기들이 모두 이 표음설에서 표어설로 발전해 갔다.

라. 표의설(表意說)

이는 '표어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일한 의미의 말은 동일한 속기문자로 표기(예, 「사람」과「인간」이란 단어(單語)를 「사람」이라는 속기 문자 하나로서 표기하는 것 따위)해도 된다는 설인데 이점은 속기가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그대로 문자화한다는 면이 강조되는 한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자화된 것의 그 표현(文體的인面)이라는 면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때에는 문자화된 것이 문체적(文體的)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표의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속기 활동이란 인간활동중 언어생활에 직결(直結)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언어가 성립된 다음에 문자가 성립되었고 문자가 성립된 다음에 속기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어의 연구와 속기의 연구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속기 문자와 그 나라의 국어와의 관계는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 3절 속기의 발생(發生)

인간의 사상(思想) 감정(感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팔하는 것과 쓰는 것이 있으며 쓰는 것은 문자로서 나타내게 된다.

이 「말」과 문자(文字)가 오늘날의 문화·문명의 발달에 있어 그 추진력(推進力)이 되었다.

문자는 원래 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호로서 만들어진 것이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한글)로서 사람의 말하는 것을 한마디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말」과 「문자」를 단순히 기록한다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말 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욕구 (慾求)에 의해서 무엇인가 더욱 간략화 (簡略化) 된 문자(무호)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속기문자인 것이다.

실로 속기는 「말」과 문자의 매개자 (媒介者)로서 우리 인간 사회에 공헌 (貢獻)하고 있는 것이다.

제 4절 속기약사 (速記略史)

1. 국외 (國外)

기원전 (紀元前) 63년 로마의 Marcus Tullius Tiro가 약기법 (略記法)을 창안한 것을 효시로 발전 되었으며 그는 이 약기법으로 유명한 응변가 (雄辯家) Cicero의 연설을 기록하였다.

이 약기법으로 당시 원로원 (元老院) 승원회의 (僧院會議)의 의사 (議事)를 기록하였고 Augustus 황제 (皇帝)는 손자에게 약기법을 가르쳤고 Titus 황제도 능숙한 속기사였다.

이 Tiro의 약기법은 약기형태 (略記形態)에 불과하였으나 14세 기경까지 사용되었다.

1786년 영국의 S.Taylor가 약간의 체계와 조직을 갖춘 속기

법식을 창안하여 이 법식이 대륙제국(大陸諸國)에 응용(應用) 활용되었다. 영국에서는 1740년부터 의회와 법원에서 속기가 활용되었으며 1803년에 Hansard협회(協會)에 의하여 속기법에 의한 의사록(議事錄)이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그뒤에 불란서(仏蘭西)의 prevost式(1826년) 독일(獨逸)의 Franz X. Gabelsberger式(1834年) 스페인의 Marti式(1800년) 등 많은 속기법식이 창안되어 각기 의회등 회의체(會議體)의 의사록에 활용되었다.

1837년 영국의 Isaac Pitman에 의하여 창안된 표음속기술(表音速記術)은 현대 속기의 신기원(新紀元)을 이룩한 것으로서 비로소 인간의 언어 속도에 관계없이 완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영국 미국등 영어 사용 국가에서는 거의 이 속기법식을 사용하거나 응용하고 있다.

그뒤 1888년 미국의 John Robert Gregg가 경선속기법(輕線速記法)을 창안하여 미국내에 크게 보급되었고 대륙제국에도 응용되었으며 Pitman式과 Gregg式이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1882년 田鎖綱紀가 Pitman계통의 Graham式을 응용 창안하여 1890년 일본 제국의회(帝國議會)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2. 국내(國內)

1909년 朴如日씨가 「하와이」에서 新韓民報에 조선속기법(朝鮮速記法)을 창안 발표한 이래 金○○이 상해(上海)에서 날마다

적기 (1923), 方翼煥, 李源祥씨가 時代日報에 조선어 속기술(朝鮮語速記術) (1925) 金한터씨가 월간(月刊) 「조선」에 우리말 속기법 (1927), 嚴正友씨가 월간 「東光」에 조선속기법 (1927) 金勇虎씨가 동래고보 교지에 조선속기법 (1934) 姜駿遠씨가 東亞 日報에 조선어 속기술 강해 (1935)를 발표하였으나 일제하(日帝下)에서는 실용을 못하였고 8.15 해방과 더불어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파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예비회의(豫備會議)부터 일본어 속기를 하던 6명의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속기 실용이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말 속기가 각광(脚光)을 받게 되기는 1946년 張基泰씨가 逸波式을 서울신문에 발표하고 이어 朴松, 朴鍾浣씨가 연구 발표하였고 1947년에 朴寅泰씨의 中央式 1948년에 金天漢씨가 高麗式 李東根씨의 東邦式 1950년 金世鏞씨가 世鍾式을 각각 발표함으로서 우리말 속기의 연구와 연수(研修)가 활발하여졌고 아울러 속기사 양성 기관도 다수 세워지게 되어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制憲國會) 아래 오늘날까지 국회 회의록을 속기법(速記法)에 의하여 날날이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기타 공공기관(公共機關) 적당(政黨) 사회단체(社會團體)의 각종 회의에 있어서 당해기관의 필요에 따라 속기법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1951년 12월에 국비(國費) 양성기관으로 국회내에 대한 속기 고등기술학교(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설립 춘재(俊才)를 양

성하였다. 이렇듯 속기 인구의 증대는 단체의 구성을 촉진하게 되어 1955년 10월 13일 대한속기학술협회(大韓速記學術協會)를 창립하여 성장 해오다 5.16 혁명으로 해산 되었고 속기 수요처(需要處)의 감퇴(減退)와 경영난(經營難)으로 사설(私設) 양성기관은 한 둘만이 존립하게 되었다.

민정이양(民政移讓) 후 속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지고 속기인의 여망(餘望)으로 1966년 12월 10일 대한속기협회(大韓速記協會)를 재건하였고 후진 속기사의 양성이 시급해져 국회내에 다시 국비 양성기관으로 국회 속기사 양성소를 설립하였고 동 양성소에서 새로이 의회속기법(議會速記法)을 연구 1969년 1월 10일 발표하고 국회속기사 양성소의 교수법식으로 채택하였다.

제 5절 속기의 구성(構成)

속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빨리 쓰기만 한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이상적(理想的)으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서 말한것을 그대로 기억 할수만 있다면 그위에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인간의 두뇌(頭腦)로서는 일자일구(一字一句) 틀리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일문이라도 기억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생겨 난 것이 속기문자로서 말한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옮바른 문장으로 작성하느냐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며 속기문자는 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속기문자 가

1.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그 속도에 따라 표기할 수 있을 것
2. 이들 속기문자들이 노력에 위하여 기억 사용될 수 있을 것.
3. 표기된 것이 후에 일반문자화 될 수 있도록 번역 할 수 있을 것.

이런 「쓰기 쉽고, 읽기 쉬운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니 이는 서로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쓰기 쉬운 것은 읽기 어렵고 읽기 쉬운 것은 쓰고 읽기 어려우며 읽기쉬운 것은 쓰거나 읽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문자를 여하히 조화(調和)시키고 체계화 하느냐의 연구가 생해지며 이 결과에 따라 속기법식의 우열이 판가름나게 되는 것이다.

속기문자에는 절, 선(直線, 曲線, 線의 長短, 方向, 角度, 位置)로서 표기되는 간단한 기호(記號)로서 이 기호에는 될 수 있는한 많은 뜻(말)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逸波式, 高麗式, 東邦式, 世謹式, 韓國式, 議會式 등의 속기법식이 있으며 여러분이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속기법식은 의회식이다.

대부분(東·西洋)의 속기문자는 한글 영어 등과 같이 표음문자

(表音文字)이다.

우리 한글에는 19개의 자음(子音)과 21個의 모음(母音)을 합하면 399 音字(이중 약 260 音字 사용) 그리고 27개의 반침까지 합하면 1254 음자가 된다.

이것을 겸용 가능(兼用可能)한 것 또 유사음성군(類似音声群)을 한데 모아 축소시켜 여러분이 원리도(原理圖)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직선 상하, 좌우곡선 등 15개의 선에서 우리가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기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식 속기법은 모두 이 15개의 선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 6절 속기의 활용(活用)

문화의 발달과 인간두뇌의 발달로 언어기록은 더욱 중요성을 띠 게 되었으며 인간이 속기문자를 고안 함으로서 속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등 각 방면에 활용되게 되었다.

속기가 활용되는 분야를 대별하면

1. 회의속기(會議速記)

의회(議會) 주주총회(株主總會) 각종 공사단체(各種公私團體)의 회의에 있어서 의사진행과정(議事進行過程)을 기록할 때 쓰인다.

2. 재판속기(裁判速記)

각급법원(各級法院)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각종조서(各種調書)를 작성할 때 쓰인다.

3. 취재 속기 (取材速記)

신문, 통신사, 방송국등 언론기관 기자들이 기사 (記事) 를 취재 (取材) 할 때 쓰인다.

4. 대담 (對談) 좌담속기 (座談速記)

신문, 잡지사의 대담이나 좌담회에서 발언 내용을 기록할 때 쓰인다.

5. 저술속기 (著述速記)

저술가 (著述家) 가 저술을 함께 있어서 자신이 짐필 (執筆) 고 자하는 내용을 구술 (口述) 하면 그것을 받아 기록할 때 쓰인다.

6. 비서속기 (秘書速記)

비서적이 상사 (上司) 의 서한 (書翰), 지시사항 (指示事項) 의 구술내용이나 예정일정 (豫定日定), 전화 (電話), 전언 (傳言) 등을 기록할 때 쓰인다.

7. 생활속기 (生活速記)

일상생활에 있어서 메모나 전화, 전언 (傳言) 또는 일기를 쓸 때 쓰인다.

제 7절 속기학습 (速記學習) 의 자세 (姿勢)

1. 마음가짐

속기운자 구성의 기본요건 (基本要件) 이 쓰기 쉽고 외우기 쉽고 일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므로 세한 (制限) 된 절과 선으로 구성되어

어느 방향의 어느 선이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면 무슨자(字)다 하
는 약속이 되고 하나의 선 혹은 점이 3음자 또는 4음자를 생
략(省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角度)나 길이의 조그마한
차이에 따라 의미나 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독
(誤讀) 또는 오역(誤訳)이 되기 쉽다.

속기를 처음 배우고자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속기문자를 빨리 쓰
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되지 않는다.

속기 학습의 첫 단계는 천천히 바르게 쓰는 것 이지 조금하게
쓰는 것은 오기(誤記) 오역(誤訳)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서서히 문자의 형태, 각도, 크기를 손에 익숙할 때까지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안된다.

속기는 머리로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익어서 평균적 인
속도로서 거칠없이 써야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도달하기 위한 속기술의 연마(研磨)는 하루 하루 노력
을 쌓아 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기술이 다 그렇지만 기술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몇 단계 뛰
어 넘어도 잘 되리라고 생각 되지만 그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속기란 속기문자를 배우고 이를 머리로서 기억 했다고 해서 즉
시 알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매일의 쓰는
연습과 속기한 것을 문장으로 번역(翻訳)하는 고된 연습에 의해서
만 서서히 속도와 정확함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날 그날의 고된 그리고 단조(單調)로운 반복연습(反復練習)

에 단련 (鍛練) 되었는가 어떤가에 따라서 속기의 성패 (成敗)는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속기 학습상의 마음가짐을 명심 (銘心) 하여 절대로 조급 (慄急)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정화, 착실하게」 속기 술을 연마 하는것 이것이 속기를 완성하는 제일 가까운 길인 것이다.

2. 몸가짐

속기는 정신노동 (精神勞動)이며 동시에 장시간의 발언을 기록하게 되므로 육체노동 (肉體勞動)이기도 하다.

그려므로 속기를 할 때 있어서 자세는 신체에 피로를 주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기록하는데 있어서 속도상 능률을 올릴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가. 앉은 자세

- (1) 앞가슴을 풀풀이 하고 턱을 당긴다.
- (2) 의자와 책상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3) 눈 바로 아래에 연필끝이 오도록 한다..
- (4) 가슴과 책상사이는 주먹 하나가 들어 갈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한다.
- (5) 용지 (用紙)는 약 15 ~ 20 도 기울게 놓을것

나. 연필잡기

- (1) 손가락 끝이 연필끝에서 2 ~ 3 cm 윗쪽에 오도록 잡는다.
- (2) 연필을 잡은 손바닥은 둥글게 비어 있도록 한다.
- (3) 연필을 잡은 손과 팔꿈치가 수평으로 책상에 닿도록 한다.
- (4) 왼손으로 항상 용지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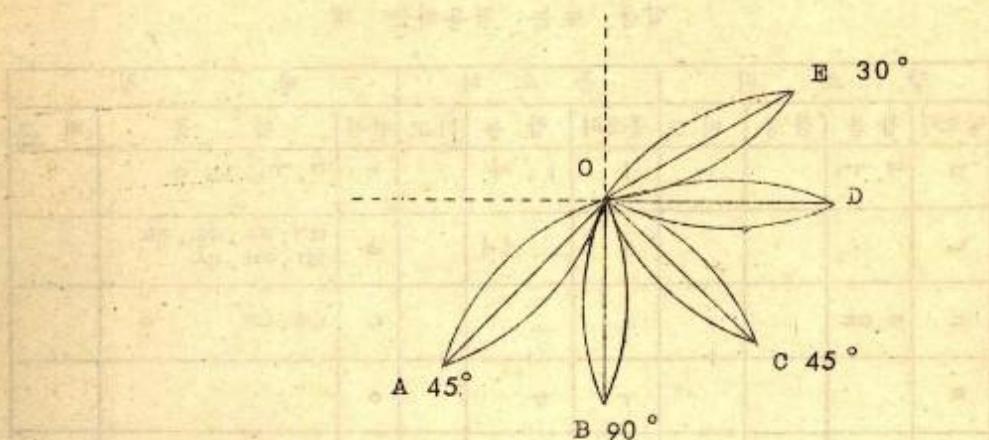
제 2 장 기 본문자 (基本文字)

제 1절 기본문자의 각행 (各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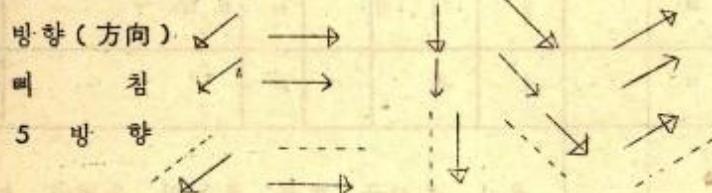
1. 원리도 (原理圖)

원리도는 안출도 (案出圖) 또는 분출도 (分出圖)라고도 하며 속기문자의 선이 나오게 된 형태를 그린 도표 (圖表)이다.

원리도



약호 (略号)



2. 기본문자의 각행

기본문자는 속기문자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원리도의 15개의 선에서 나오며 이 선의 방향 곡·직 (曲·直)에 따라 자음 (子音: 初声)이 결정된다.

문자의 길이는 4 mm, 8 mm, 15 mm로 구분하고 원이 있는 문자는 자미(字尾)에 소원 1 mm 또는 대원 3 mm를 붙이며 문자의 길이, 대·소원(大·小円)에 따라 모음(母音; 中声)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각 문자는 한 음자(音字)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 표와같이 합용(合用) 또는 겸용(兼用)하는 경우가 있다.

합용 또는 겹용하는 예

당 소 리				홀 소 리			반 침			
당소리	합 용	겸 용	비 고	홀소리	합 봉	비 고	반침	합 용	비 고	
ㄱ	ㅋ, ㄲ			ㅏ	ㅏ. ㅑ		ㄱ	ㅋ, ㄲ, ㄱㅅ	ㅋ	
ㄴ				ㅓ	ㅓ. ㅕ		ㄹ	ㄹㄱ, ㄹㅋ, ㄹㅎ, ㄹㅌ ㄹㅁ, ㄹㅂ, ㄹㅅ		
ㄷ	ㅌ, ㄸ			ㅗ	ㅗ		ㄴ	ㄴㅎ, ㄴㅈ	ㅇ	
ㄹ				ㅜ	ㅜ		ㅇ			
ㅁ				ㅓ	ㅓ		ㅅ	ㄷ, ㅈ, ㅊ, ㅌ ㅅㅅ		
ㅂ	ㅂㅂ	ㅍ		ㅐ	ㅐ. ㅔ		ㅂ	ㅍ, ㅂㅅ		
ㅍ		ㅂ		ㅓ	ㅓ		ㅁ			
ㅅ	ㅆ									
ㅇ			예 외							
ㅈ	ㅉ	ㅊ								
ㅊ		ㅈ								
ㅎ										

유사 음성군 또는 혼동의 우려가 없는
문자는 이를 합용 또는 겸용하여 속기문
자의 수를 축소시키므로서 학습상의 부담
을 덜게 하였고 운필에 가속을 기하였다.

가 행 (카행 포함)

원리도의 OA 회적선이다. (//)

예사소리(平音) 원소리(硬音) 거센소리(激音)를 포함한다.

가 (카. 갸. 까. 파. 짜. 짬. 캬.) 거 (커. 그. 겨. 껴. 께. 꿔. 꿕. 꿕. 꿕. 꿕) *

4 번째 선으로서 자미(字尾)를

빠 차거나 굽어 지지 않도록 써

야 한다

4 번 직선 자미(字尾)에 소원을

을 불여 쓴다.

적설이 굳어지지 않도록 와전

희 쓴 다음에 속월을 첫 살에

고(고, 고, 고, 고)

구(구, 규, 꾸, 큐)

8 mm의 직선에 소원을 붙인다.

15 mm의 직선이다.

기 (키 , 끼 , 퀴 , 귀)

개(캐.계.계.깨.께)

8 층의 직선이다.

15 번의 직선에 소원을 불인다.

쾨(쾨, 쫌, 쾨, 콤)

8 번 직선에 대원을 붙인다.

이상과 같이 기본 7자로 합용하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등은 인명(人名) 지명(地名) 등 꼭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예사소리(平音)

가. 흘흘소리 (单母音)

다음의 문자에는 자 중간에서 OB의 방향으로 1mm 빼친다.

그

계

나. 겹흘소리 (複母音)

(1) 다음의 문자에는 자 중간에서 OC의 방향으로 1mm 빼친다.

갸 거 교 규 귀 계 패

(2) 다음의 문자에는 자 중간에서 OA의 방향으로 1mm 빼친다.

과 귀 케

2. 된소리 (硬音)

가. 흘흘소리 (单母音)

(1) 다음의 문자에는 자 중간 하 2mm 위치에 가점 (加点)

까 꺼 교 꾸 깨 깨 께

(2) 다음의 문자에는 자 중간 하 2mm 위치에서 OB 방향으로

1mm 빼친다.

꼬

께

나. 겹흘소리 (複母音)

(1) 다음의 문자에는 자 중간 하 2mm 위치에서 OC의 방향으

로 1 mm 빼친다.

꺄 꺌 꺌 꺌 꺌 꺌
/ / / / / /

- (2) 다음의 문자에는 자 중간 하 2 mm 위치에서 OB의 방향으로 1 mm 빼친다.

꽈 꽈 꽈
/ / /

3. 거센소리(激音)

가. 흘흘소리(单母音)

- (1) 다음의 문자는 자 중간 상 2 mm 위치에 가점

캬 캬 쿄 쿄 키 키 캐 캐
/ / / / / / / /

- (2) 다음의 문자는 자 중간 상 2 mm 위치에서 OB의 방향으로 1 mm 빼친다.

크 케
/ /

나. 겹흘소리(複母音)

- (1) 다음의 문자는 자 중간 상 2 mm 위치에서 OC의 방향으로 1 mm 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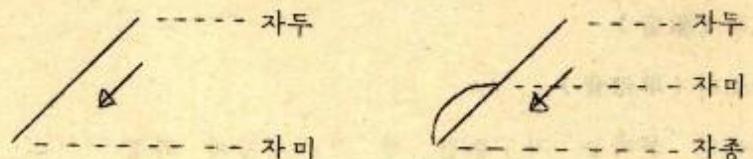
캬 꺌 꺌 꺌 꺌 꺌 꺌
/ / / / / / /

(2) 다음의 문자는 자 중간 상 2 mm 위치에서 O A의 방향으로
1 mm 빼친다.

과 퀴 퀘


※ 기본 7자 이외의 기법 (記法)은 다른 행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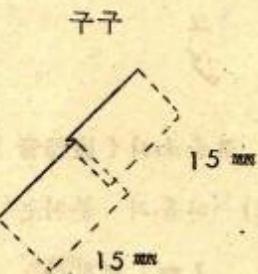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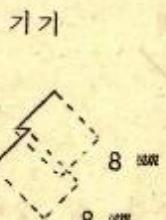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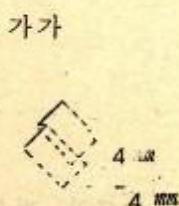
4. 자두 (字頭), 자미 (字尾), 자종 (字終)의 구별



5. 이어쓰기

원이 없는 문자는 자미 (字尾)에서 약간 (1 mm 정도) 우측으로
멈추었다 다음 문자를 쓴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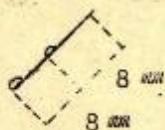
원이 있는 문자는 자미에서 이어쓰되 자종 (字終)에서부터 다음자의 길이를 계산한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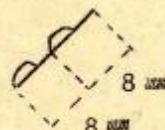
거 거



고 고



과 과



연습에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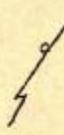
가 거



거 개 가



고 기 가



가 고



가 구 가



개 고 기



귀 가



크 기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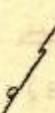
고 개 가



귀 고



기 교 가



그 거 고



나 행

OD의 하곡선 ()으로서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말한다.

나(나, 뇨) 너(녀, 느) 노(뇨) 누(뉴) 니(뉘) 대(네) 뇌

~ (4) ~ (4) ~ (8) ~ (15) ~ (8) ~ (15) ~ (8)

이 어쓰기

나나 ~ 너너 ~ 니니 ~

나그네 ~ 교가냐 ~ 고녀 ~

다 행(타행 포함)

OD의 직선(→)이다.

다(타) 더(드, 터, 트) 도(토) 두(투) 디(뒤, 티, 뒤)

— — — — —
(4) (4) (8) (15) (8)

대(데, 태, 터) 되(嵬, 희)

— —
(15) (8)

이 어쓰기

같은 행의 경우 원이 없는 문자는 자미 좌하로 1mm 멈추었다.

다음 문자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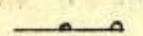
다다 — 디 디 — 두두 —

같은 행의 경우 원이 있는 문자는 자미에서 이어쓰되 자종에서
부터 다음자의 질이를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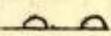
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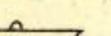
도도



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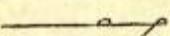
여디다



더디고



데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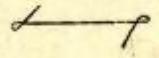
여구나



뜨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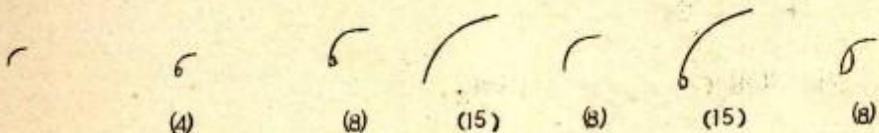
그대가



라 행

O A의 상곡선 (✓) 이다

라(랴) 러(려.루.뤼) 로(료) 루(류) 리(뤼) 래(례.례) 뢰



이어쓰기

라라



러러



뢰뢰



뢰괴



라나



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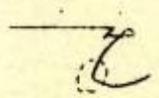
뢰뇌



뢰괴



두드리니



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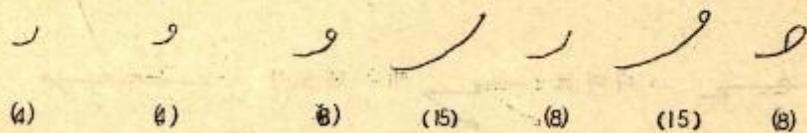
고르니까



마 행

O 모의 하곡선 () 이다.

마 머 (모, 머, 뮤) 모(묘) 무(뮤) 미(뮈) 매(메)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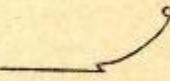


이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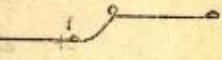
다리미



두메



네모대



나 무



미나리



모래



바 행

O 모의 직선 () 이다.

바(빠봐) 베(벼, 브, 빠, 뮤) 보(뽀) 부(뿌) 비(삐) 배(배, 빼) 희

빠, 브

뽀

(4)

(4)

(8)

(15)

(8)

(15)

(8)

이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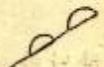
바바



버버



비비



나비



부모



마부



파 행

OO 의 하곡선 (↘) 이다.

파 피(프.펴) 포(표) 뿐(퓨) 피 패(폐.폐) 펴
 ↗ ↗ ↗ ↗ ↗ ↗
 (4) (4) (8) (15) (8) (15) (8)

이어쓰기

파다 ⌈ 피마 ⌈ 라파 ⌈ 파나 ⌈

* '바' 행과 '파' 행에 있어서 쓰기 불편한 경우 서로 겹용 한다.

나비 ↗ → ↗ 가파르다 ↗ ↗ ↗ ↗ ↗ ↗
 ↗ ↗ ↗ ↗ ↗ ↗ ↗ ↗ ↗ ↗ ↗ ↗
 펴나버리고 ↗ ↗ ↗ ↗ ↗ ↗ ↗ ↗ ↗ ↗ ↗ ↗
 사 행 ↗ ↗ ↗ ↗ ↗ ↗ ↗ ↗ ↗ ↗ ↗ ↗

OO 의 상곡선 (↗) 이다.

사(싸) 서(서.스.쎄.쓰) 소(쏘) 수(쑤) 시(쉬.씨) 새(체.쌔.쌔)
 ↗ ↗ ↗ ↗ ↗ ↗ ↗ ↗ ↗ ↗ ↗ ↗
 (4) (4) (8) (15) (8) (15)

쇠(쇄)

↗
(8)

이어쓰기

사사 ~~~ 사마 ~~~ 사바사바 ~~~~~~
 사나 ~~ 나사 ~~ 사다리 ~~
 아 행

아행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문자이므로 원리도의 한개 방향파
 선에 구애되지 않고 다른 문자와 충돌되지 않는 간편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야) 어(여.으) 오(요) 우(유) 이 애(애) 에(예.의)

아	어	오	우	이	애	에
(4)	(8)	(4)	(4)	(4)	(4)	(4)
와	위	위	위			
(~	~	~	()
(4)	(8)	(8)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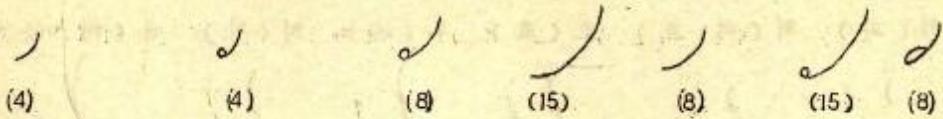
이어쓰기

우우 ㅓ ㅣ이 ㅔ ㅔ에 ㅓㅓㅓ 어머니 ~~~~~~
 시위 ㅓㅓㅓ 어디로 가느냐 ~~~~~~ 이파리 ~~~~~~
 에네르기 ~~~~~~ 아마 ~~~~~~ 마어 ~~~~~~ 위기 ~~~~~~

자 헥

O A 의 하곡선 () 이다.

자 (자짜) 저 (즈, 쥐, 짜, 쪘) 조 (조) 주 (쭈) 지 (쥐, 짖) 채 (제째) 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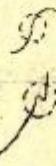


이 어쓰기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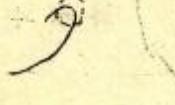
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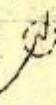
사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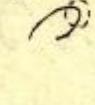
아주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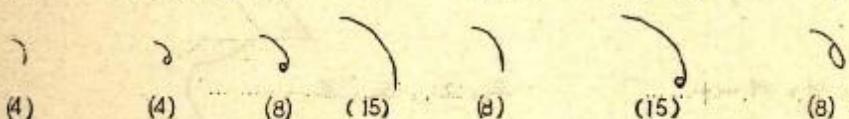
여자



차 ←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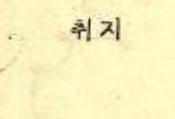
O O 의 상곡선 () 이다.

차 처 (처, 츠) 초 추 치 (취) 채 (체) 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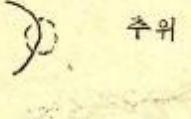


이 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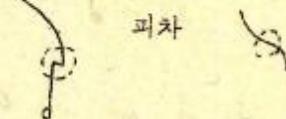
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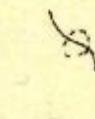
취지



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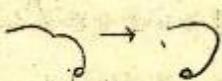


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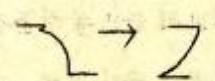


※ “자” 행과 “차” 행에 있어서 쓰기 불편한 경우 서로 겹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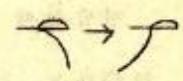
자초



다치다



되치



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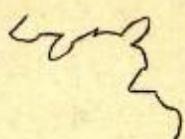
○ B의 우곡선 () }) 이다.

하(화) 허(허, 흐) 호(호) 흰(흰) 헤(헤) 해(헤, 해) 희
)))))))

이 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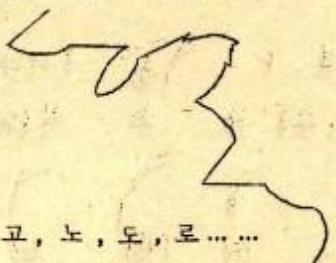
아호 투하 — 유가 하와

가, 나, 다, 라... ...



자, 너, 머, 러.....

기, 너, 디, 리... ...



고, 노, 도, 로.....

괴, 놔, 되, 회....

연습할 때 받침이 있는 문장도 받침이 없는 문장으로 색각하고
연습하는 것이 예문 구하는데 아주 손쉬운 것이다.

제 2 절 . 받 침

우리말의 현재 사용되는 받침수는 27개나 속기학에서는 유사음
(類似音)을 합쳐 7개의 받침만을 사용하며 소리대로 표기 (表記)
한다.

1, 그 받침

그 받침은 1~2 mm의 직선을 원리도 OA의 방향으로 차미에서 빼친다.

단 자미가 OA의 방향에서 끝나는 문자는 그대로 자미만을 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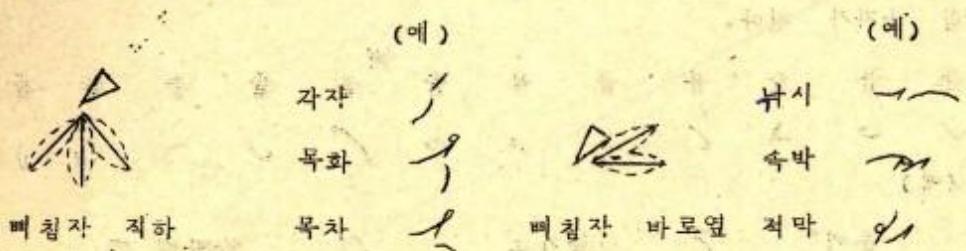
작 낙 락 락 막 박 삭 악 작 착 꽈 하

1 - - 1 1 1 2 0 1 3 5 4)

적 빠 끄 락 봐 빠 쇠 끄 쳐 쳐 빠

1976-1977 Report

빼진 문자 다음의 문자는 문장의 구성요소에 따라 이어쓰되 1~
2 빼어 쓴다.



2. ㄹ 받침

ㄹ 받침은 1~2회의 직선을 원리도 OB의 방향으로 자미에서 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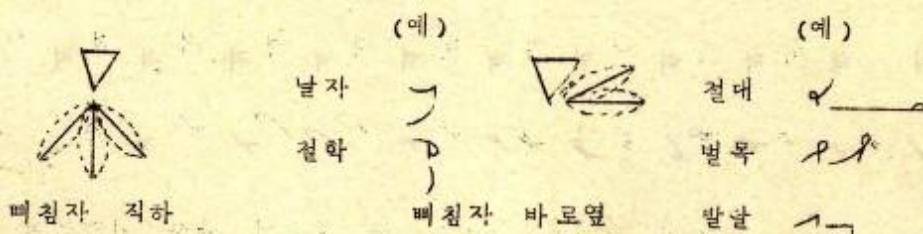
단 자미가 OB의 방향에서 끌나는 문자는 그대로 자미만을 빼치며 그 받침과 합용한다.

※	※	※	※	※	※
갈	날	달	랄	랄	랄
결	널	덜	릴	멸	설
거	거	거	거	거	거

() () () () () ()

결	널	덜	릴	灭	설	얼	절	철	별	혈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빼친 문자 다음의 문자는 문장의 구성요소에 따라 이어쓰되 1~2회되어 쓴다.



받침 문자중 'ㅎ'의 문자에 한해서는 소원을 빼므로서 ㄹ 받침 문자가 된다.

글	늘	들	틀	믈	불	슬	※을	줄	출	풀	흘
ㄱ	ㄴ	ㄷ	ㄴ	ㅁ	ㅂ	ㅅ	ㅡ	ㅓ	ㅓ	ㅓ	ㅡ

(예) 글기
줄기고
슬풀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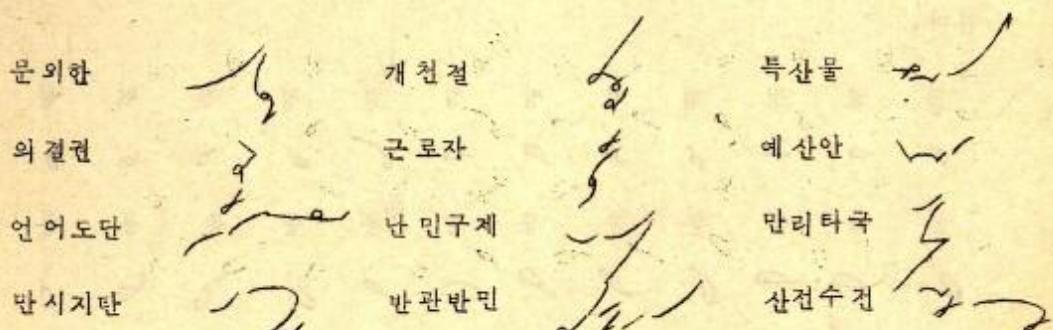
3. ㄴ받침

↳ 받침은 1~2 모의 직선을 원리도 0 모의 방향으로 차미에서 빼친다.

단 자미가 0을 의 방향에서 끝나는 문자는 그대로 자미만을 빼친다.

※ 난 단 란 만 반 산 ※안 잔 찬 판 한
 । ～ 一 । / / ～ । 〉 ॥ ॥ ॥ ॥
 견 년 연 련 언 번 선 ※언 전 천 편 헌
 । ॥ ॥ ॥ ॥ ॥ ॥ ॥ ॥ ॥ ॥ ॥ ॥ ॥ ॥

빼친 문자 다음의 문자는 문장구성 요소에 따라 이어쓰되 1~2 = 의
어 쓴다.



4. ○받침

○받침은 원이 없는 문자나 대원문자로서 초자의 경우에는 자 두에 소원을 붙인다.

강 낭 당 랑 망 방 상 앙 장 창 광 활
 ㄱ ㅡ ㄴ ㅏ ㅇ ㅏ ㅁ ㅏ ㅂ ㅏ ㅅ ㅏ ㅓ ㅏ ㄴ ㅏ ㄱ ㅓ ㅓ ㅓ
 흥 경 흉 흉 맹 빙 흉 윙 흉 흉 흉 흉 흉
 ㅎ ㅡ ㅋ ㅡ ㅌ ㅡ ㅌ ㅡ ㅁ ㅡ ㅂ ㅡ ㅌ ㅡ ㅍ ㅡ ㅌ ㅡ ㅌ ㅡ ㅌ ㅡ ㅌ

원이 없는 문자나 대원문자로서 2음이하의 경우에는 앞자의 자미 또는 자종으로부터 1~2 ■ 들어온 위치에서 ○받침문자를 교차하게 된다.

강 낭 당 랑 망 방 상 앙 장 창 광 활
 ㄱ ㅡ ㄴ ㅏ ㅇ ㅏ ㅁ ㅏ ㅂ ㅏ ㅅ ㅏ ㅓ ㅏ ㄴ ㅏ ㄱ ㅓ ㅓ ㅓ
 흥 경 흉 흉 맹 빙 흉 흉 흉 흉 흉 흉
 ㅎ ㅡ ㅋ ㅡ ㅌ ㅡ ㅌ ㅡ ㅁ ㅡ ㅂ ㅡ ㅌ ㅡ ㅍ ㅡ ㅌ ㅡ ㅌ ㅡ ㅌ ㅡ ㅌ

모음 “ㅏ, ㅗ, ㅕ”같은 소원문자에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초자와 2음이하를 막론하고 대원을 하여 줌으로써 ○받침 문자화 한다.

강 넝 명 령 명 병 성 *영 정 청 평 형
 ㄱ ㅡ ㅜ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풍 능 동 통 몽 봉 송 *옹 총 총 풍 흥
 ㅎ ㅡ ㅜ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2 mm

가 강 / 기 강 / 타 담 —

드 달 = 바바 = 버 밤 =

• 밟침은 는 밟침과 할 용하다.

망원경 $\text{G}_1 \rightarrow \text{G}_2$ 창의성 $\text{G}_2 \rightarrow \text{G}_3$

타당 — → 〽 비방 — → 〽

봉전사상 $f_m \rightarrow f_{\infty}$ 상정하다 $\exists \rightarrow \tilde{\exists}$

형과 들 → 파 임 충 성 →

방송국 ㄱ → ㄱ 시장사항 ㅋ → ㅋ

5. ㅅ 받침

수 받침은 초자의 경우 자두에 1~2 mm의 사선(0A 또는 0E 방향)을 붙인다.

갓 낫 닻 랗 맛 뱃 삿 앗 잣 찻 짬 핫
거 ㄱ ㄴ ㄷ ㅅ ㅌ ㅁ ㅂ ㅅ ㅏ ㅈ ㅊ ㅊ ㅍ ㅎ
것 넛 멋 렛 멋 벗 섯 엇 것 첫 펫 엇
거 ㄱ ㅓ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2 음이하의 경우 앞자의 자미 또는 자종에 ㅅ반침 문자의 자두를 1 ~~을~~ 걸쳐 준다.

갓 낫 닻 랗 맷 밧 삿 앗 짓 찻 팟 핏
갓 넛 멛 렛 멛 벋 쇳 엛 젓 첫 펫 혯

동행 직선 문자의 경우 2음이하의 시발침 문자는 앞자 자미에
붙이어 초자의 경우와 같이 표기한다.

(४)

가갓	/	다닷	-	바밧	-
온갓	/	웃다	-	어느덧	~
웃갓	/	엿 보고	~	놋그릇	~
흐뭇한	~	벼젖이	~	어엿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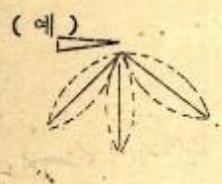
6. ㅂ 받침

ㅂ 받침은 1 ~ 2 mm의 직선을 원리도 O D의 방향으로 자미에서 빼친다.

단 자미가 O D의 방향에서 끝나는 문자는 그대로 자미만을 빼치며 ㅅ 받침과 합용한다.

갑	남	※	답	랍	맙	밥	삼	압	잡	찹	팝	합
↙	↙	—	↙	↙	↙	~	~	↙	↖	↖	↖	↖
겁	넙	덥	럽	덥	법	섭	업	접	첩	폄	협	험
↙	↘	→	↙	↙	↙	↙	↙	↖	↖	↖	↖	↖

빼친 문자 다음의 문자는 문장의 구성요소에 따라 이어쓰되어 1 ~ 2 mm 띄어 쓴다.



(예)

법률	법	법의	법	법	법
금화	금	금	금	금	금
짜다	짜	짜	짜	짜	짜
합의	합	합	합	합	합
바로옆	바	바	바	바	바
압박	압	압	압	압	압

(예)

급기야	급	급	급	급	급
법률부	법	법	법	법	법
법률가	법	법	법	법	법
납입금	납	납	납	납	납
관습법	관	관	관	관	관
금선무	금	금	금	금	금
실업가	실	실	실	실	실
합법적	합	합	합	합	합
최고급	최	최	최	최	최
기업자	企	企	企	企	企
집권당	集	集	集	集	集
협잡배	협	협	협	협	협

7. 모반침

모반침은 1~2㎜의 직선을 원리도 O C의 방향으로
자미에서 빼친다.

자미가 O C의 방향에서 끝나는 문자는 그대로 자미만을 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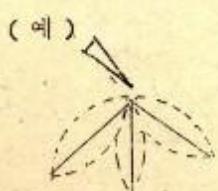
감 남 담 탐 맘 밤 삼 담 잠 참 팜 함

〈 ～ 一 〈 ㅅ ㅅ ～ ㅅ 〈 ㄱ ㄱ ㄱ

검 념 덤 럼 멈 범 섬 엄 점 첨 펌 혐

ㅋ ㅌ ㅎ ㅊ ㅍ ㅈ ㅊ ㅌ ㅍ ㅎ

빼친 문자 다음의 문자는 문장의 구성요소에 따라 이어쓰되 1~
2㎜ 띄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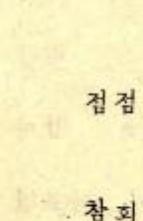
빼침자 직하

가감

양심

검사관

암암리



접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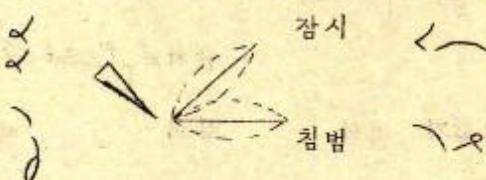
기금

예금

겸직

보험금

(예)



빼침자 바로옆

아침

참석

국산품

몰부림

↑

↑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계계도를

화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52-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 3 장 변자(變字)와 품사(品詞)

제 1절 변자와 조사 (助詞)

1. 변자 (變字)

기본문자중 빈도수 (頻度數) 가 많고 쓰기 불편한 문자를 보다
간편한 획선 (劃線) 으로 변형 (變形) 하여 흔자로 활용케 하는 것
을 변자라 한다.

약호 (略号)

△ 첫자

낱말의 첫자의 경우만 사용한다.

○ 둘째자 이하

둘째자 이하에만 사용한다.

◎ “가” 행

* 전, 근, 견, 권 ,----- : ----- “나” 받침

사전 ~ 조전 ↗ 전강 ? : ↗

견설 ↗ 견국 ↗ 근대 -----

근소 ↗ 근방 ↗ 근처 ↗

출근 ↗ 기근 } ↗ 주권 ↗

민권 ↗ 의견 ↗ 인권 ↗

* 검 ↗ (전)

검열 ↗ 검사 ↗ 임검 ↗

* 고 ↗ O.C 방향의 2mm 직선

고지서 ↗ 고속도로 ↗ 고층건물 ↗

경고문 ↗ 끌고간다 ↗ 경정고시 ↗

문고리

고문판

재고

※ “고”의 변자에 반침을 활용한 경우

곡

>

곡식

>~

곡가

>

곡(곧)

곧바로

~

곧은

✓

곧

~

곧육

~

곧봉

✓

※ 파, 〈(와) 기본문자 “파”와 합용한다
하, 화)

파연

✓

파거

~

사파

~

※ 김, 군, 금 “간”의 반

군관민

✓

군함

~

천군

~

육군

✓

장군

~

금리

~

※ 개 : OB 방향의 2 칙 선

개미

✓

개천절

~

개인

~

대개 ————— 소개 ↗ 미개 ↗

안개 ↗ 공개 ↗ 분개 ↗

개방 ↗ 고개 ↗ 개시 ↗

◎ “나” 행

* 논, 론 ↗ (판)

막론 ↗ 절론 ↗ 재론 ↗

논리적 ↗ 논설 ↗ 논증 ↗

* 내 ↗ “라마”를 이어 쓴 형태나 자두와 자미는 수평
(水平) 이어야 한다.

내가 ↗ 내일 ↗ 인내심 ↗

내린다 ↗ 가내공업 ↗ 내분 ↗

* “내”的 변자에 받침을 활용한 경우

변 \curvearrowleft 보낸다 \curvearrowleft 자아낸다 \curvearrowright

냄 \curvearrowleft 냄새 \curvearrowright 냄비 \curvearrowright

별 \curvearrowleft 보낼 물건 \curvearrowright 껴별 \curvearrowright

법 \curvearrowleft 법다 \curvearrowright 스법 \curvearrowright

벗 \curvearrowleft 벗가 \curvearrowright 벗물 \curvearrowright

* 남 \curvearrowleft (남) 남녀 \curvearrowright 월남 \curvearrowright

◎ “다” 행

* 단, 당, 탄, 탕 — (답)

단군 \curvearrowright 수단 \curvearrowright 탄력 \curvearrowright

탕진 \curvearrowright 성당 \curvearrowright 무단 \curvearrowright

경탄 \curvearrowright 당선 \curvearrowright 탄복 \curvearrowright

* 도, 토 $\cdots \cdots$

-60-

※ 돈, 동, 톤, 통 — (팁)

돈독 ——↗ 동기 ↗ 통신 —~~~~

소동(통) ~~~ 전통 ↘— 기동대 ↙——

자동 ↙ 동정 ↗ 톤수 —~~~~

※ 들 ↗————— “ㄹ” 받침

그들 ↗ 사람들 ↗ 들장미 ↗

우리들 ↗ 들판 ↗ 들어라 ↗

들어서 ↗ 아들 ↗ 들어서 ↗

※ 대, 태, 때 ↗ (바)

대강 ↗ 대령 ↗ 태도 ↗~~~~

상태(태) ~~~ 일할때 ↗ 실태 ↗~~~~

◎ “라” 행

* 립, 입 | (일)

입석 ↗ 입견 ↗ 입장 ↗

자립 ↗ 난립 ↗ 전립 ↗

* 례 ↘ (예)

전례 ↙ 월례 ↙ 무례 ↗

◎ “마” 행

* 무, 물, 묵, 목 ↗---; --- “ㅁ” 받침

무사 ↗ 물건 ↗ 목살 ↗

노무자 ↗ 기물 ↗ 목파 ↗

* “무”의 변자에 받침을 활용한 경우

웃, 묻, 물 ↗ (무+ㅅ)

뭍에 ^ 뿐고 ^

◎ “바” 험

* 북, 북, 북 (왕)

북진 () 북괴 ⌂ 북부 ✓

북리 ⌂ 북사 ⌂ 북수 ⌂

북로 ⌂ 북포 ⌂ 북언 ✓

거북 ⌂ 보북 ⌂ 진북 ⌂

이북 ⌂ 착북 ⌂ 대북 ⌂

* 본 (분)

본분 / 본건 / 본부 /

각본 // 초본 ✓ 기본 ✓

* 부, 불 ↗ : ↘ “ㅂ” 별침

부당 —— 불리 ↗ 부인 ↘
당부 —— 지불 ↗ 가부 ↘
광부 ↙ 치부 ↘ 명부 ↙

◎ “사”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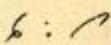
* 섭, 습, 설 ↗ (술)

섭취 ↗ 습성 ↗ 설마 ↗
포섭 ↗ 모습 ↗ 시설 ↗

◎ “아” 행

* 양, 앙, 탕, 땅 ↗ (악)

양보 ↗ 앙망 ↗ 양친 ↗
찬양 ↗ 신앙 ↗ 수양 ↗

* 역, 력  (역, 력) 양자중 편한 것으로 겸용한다.

역사  역할  마력 

전력  수력  미력 

* 영, 음  (령)

영웅  영(음)화  음자 

운영  금융  영문 

* 율, 육  (육)

육성  양육  율동 

* 월  (어)

월권  월급  세월 

이월  초월  수월 

* 익  (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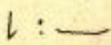
이익  수익  권익 

* 일  (자) "수사"의 "1"로 통일해 쓴다.

일 선장병  일 간지 
 매 월  휴 일 

일임

종일

* 임, 님  (인, 난) 양자중 편한 것으로 겸용한다.

임무  임박  임시 
 스님  따님  장님 

◎ “자” 행

* 잡  (작)

잡지  잡무  추잡 
 잡초  혼잡  잡고 

* 장  (자)

장래  장소  무장 
 장군  가장  훈장 

* 집  (직)

집합  집중  편집 

-66-

모집



집결



집념



* 제, 재(△) ----- "ㄱ" 발침

제기



재단



재산



제출



재판



제조



◎ "하" 행

* 하.화 (:) (화)

평화



통화



대하금



* 합



(학)

합심



합의



시합



합법



합리적



저합



* 핵



(액)

핵무기



핵심



* 행, 횡



(행)

행방



미행



수행



행사



행동



행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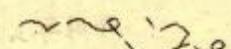
2. 조사(助詞)

* 을, 를 --- (사)

노력을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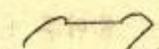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착각을 하고



어디를 가나



보고를 받고



작오를 하고



* 에, 의
에 있(으) --- (예)

에 있다 ---

길가에 앉아



서울에 가면



광산에서



국민의 권리



기술의 향상



그의 설명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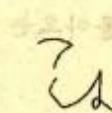


* 와, 과 (와)

우리의 목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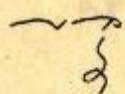


사랑과 미움



인내와 노력

신속과 정확



* 도, 도있(으)



O A 또는 O E 방향의 2 ~~mm~~직선이다.

우리도



몰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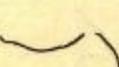
너무도



불러도



눈치도



그때도



나도 있으니



집도 있으며



문제도 있다니



* 고, 고있(으)

(변자 "고")

살피고



다니고



살자고



간다고



온다고



오고가고



알고 있으니



보고 있으나



을고 있다면



* 는



: ---



(2 ~~mm~~의 직선을 좌상 또는 우하로 빼친다)

즐기는



나아가서는



우려되는



배우는



이대로는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해당하는



내가사는



* 는것 --- ~ (너)

아는것이 힘 ~ () 돌아오는 것을 ~

배우는 것을 /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164

는것은 --- ~ 는 것도 --- ~

속기를 배우는 것은 210 먹는 것도 10

* 은 --- (은)

좋은 사람과 1? 학생들은 1? 우리들은 1?

은것 --- (으) 은것은 --- 은것도 ---

먹은 것을 10 살은것이 ~1 들은 것도 10

갚은 것은 10 낚은 것과 1? 좋은 것도 1?

* 서 - ㅂ: 기본 문자의 원을 불이는 반대 방향에 소원을

한다. 단: 앞자가 빠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ㄱ 가서는 ㅅ 멀리서 ㄱ

즐겨서 ㅂ 펼어서 ㅡ 놀아서 ㅡ

※ 로, 으로, 모으로 --- (파) ※ “에”와 구별되게 많이 굽힐 것.

어디로 ↗ 송은 길로 ↗ 기차로 ↗

내 생각으로 ↗ 걸으로 ↗ 나아가므로 ↗

로서, 으로서, 모으로써 ---

자랑으로서 ↗ 의리로서 ↗ 설감으로써 ↗

※ 만, 지만 --- (만)

다만 ↗ 너희만 ↗ 우리만 ↗

애쓰지만 ↗ 달아 나지만 ↗ 바보같지만 ↗

※ 마는, 많은, 지마는 --- (마는)

말 합니다마는 ↗ 일을 합니다마는 ↗

나가지마는 ↗ 너무나 많은 ↗

※ 대로 --- (자미, 또는 자종 우사상 4 위치에서 “로”)

그대로 ↗ 주장대로 ↗ 예상대로 ↗

※ ㄴ(것) } “ㄴ” 반침 및 “ㄹ” 반침 다음에 나오는 “것”
ㄹ(것) }

자는 이를 생략한다.

선물로 준 것을 ↗ 다른 것도 ↘
그런 일도 생길 것이며 ↗ ↘ 울것도 없어요 ↗
보고한 것을 ↗ 살아갈 것이 ↗

※ 만큼, 면서 --- (명)

그만큼 ↗ 저만큼 ↗ 이만큼 ↗
만큼도 --- 손톱만큼도 ↗ 이만큼도 ↗
만큼은 --- ↗ 나만큼은 ↗ 그이만큼은 ↗
…것만큼 --- ↗ 노력한 것 만큼 ↗ 일 할 것 만큼은 ↗
보면서 ↗ 자면서 ↗ 자라면서 ↗
놀라면서도 ↗ 따르면서 ↗ 일하면서 ↗

※ 가지, 까지 -----

앞자 자미 또는 자종의 바로 옆 위치에서 2 ^째의 수직선
문자를 써주며 자종간이 앞자 자미 또는 자종에 걸쳐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돈을 가지고 — ~한 가지 .) , 여러 가지 16

거기까지는 / 지금까지도 ↗ 여태까지도 ↘

※ 가져 --- (“ 가지 , 까지 ” 와 같다)

가진(것) --- \vee_k 가질(것) --- | 가졌(으, 다) --- |

가졌을(것) --- 가졌음 ---

* “하, 이” 생략(省略)법

다음 자에 “ㅅ” 받침을 함으로써 “하, 이”를 생략한다.

하나	하라	하마
이나	이라	이마

하자 } --> 하고 } ---x 하는 } --> ↗
 이자 } 이고 } 이는 }

그렇다하나  일을하라니  곧하마 

노래하자 공부하고 운동하는

너하고 나하고 ↗ ↘ 본것하고 ↗ ↘ 먹이는

※ 하다, 이다 - - - - . (가첨)

앞자 자미 또는 자종 2^{mm}위치에 가첨한다.

한다, 인다 - - - - (" 하다, 이다 " 위치에 " ㄴ " 받침)

일을 하다 人. 먹이다 人. 죽이다 人.

노력한다 人. 공부한다 人. 죽인다 人.

※ 라고 --- (악)

가라고 人. 오라고 人. 보라고 人.

죽으라고 人. 하라고 人. 이라고 人. 공부하라고 人.

※ 려고, 르고 --- (력)

가려고 人. 살려고 人. 살피려고 人.

하려고 人. 이려고 人. 일하려고 人. 먹이려고 人.

벼르고 人. 부르고 人. 자르고 人.

조르고 人. 가르고 人. 흐르고 人.

※ 한테 - - - - (" 형 " + " ㄴ ")

우리한테



나한테



누구한테



※ 면 (자중간상 2^째위치에서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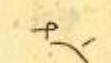
나가면



설치면



열치면



※ 하면, 이면 (자중간상 2^째위치에서 "ㅅ+ㄴ")

잘하면



그런 내용이면



노력하면



※ 면은, (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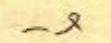
가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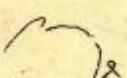
보면은



살면은



열심히하면은



사람이면은



※ 듣(것) 던(것) (반)

입던 것으로



따르던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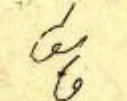


읽던 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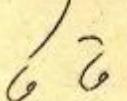


※ 듣지, 던지 ("리+머")

가듣지 말듣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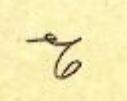


죽듣지 살듣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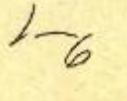


※ 라듣지, 라던지 ("리+타원")

떠나라듣지



진실이라듣지



공부하라든지

가보라든지

가보라든지

※ 듣가, 던가

리

(리+마)

이야기하든가
하는 것은

리

래리든가는

리

※ 라든가, 라던가

리

(리)

서라든가, 앉으라든가

리

타고가라든가

리

※ 같(으, 다)

리

(정)

단날것 같(으, 다)

리

본것같(으, 다)

리

살것같(으, 다)

리

알것같(으, 다)

리

…같고

리

…같다고

리

…같은(것)

리

…같을(것)

리

…(같음)

리

…같으니

리

비가울것 같고

리

그와 뚜 같다고

리

크기는 같은것이지만

리

다 같을 것이요

리

나 같으면

리

그때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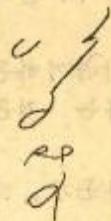
리

* 와
파
는바와 } 같(으, 다) --- ↗ (종)

그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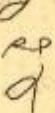
내친구와 같다



나와 같이



오늘과 같이



와
파
는바와 } 같고 --- ↗

와
파
는바와 } 같다고 --- ↗

와
파
는바와 } 같은(것) --- ↗ ↵

와
파
는바와 } 같을(것) --- ↗ ↵

와
파
는바와 } 같음 --- ↗ ↵

와
파
는바와 } 같으니 --- ↗ ↵

특 예 : “ 하, 이 „기법 활용

이같이



이같은



이와같이



이와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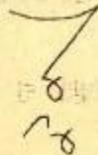
* 처럼

(청 + ㄴ)

그처럼



누구처럼



친구처럼



알 것처럼



* 깨서 --- 〽 (차)

깨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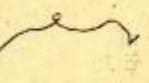
깨서는



아버지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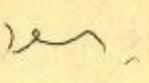
어머니께서도



할아버지께서는



할미니께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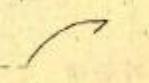


* 보다 --- 〽 (15 mm)

보다는



보다도



신문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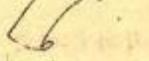
노는 것보다



영화보다도



굵는 것 보다도



기차보다는



다방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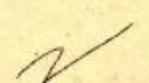


* 부터 --- 〽 (15 mm)

처음부터 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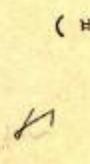


여기서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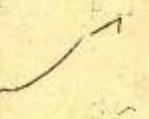
* 밖에 --- 〽 (바 개)

밖에



그밖에

내문밖에



* 고서, 고자 --- 〽 (고十서)

끌고서



보고하고서



가고자



일고자



※ 는데

(처)

~는



~도



~서



집에 오는데



힘드는데



이기는데



기다리는데



애셨는데도



모르는데도



정치하는데는



공부하는데는



책임지는데서



느끼는데서



잘하려고 하는데도



주의하는데도



살피는데



나가는데



※ 냐는데

(출)

~는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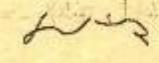
~서



돈을 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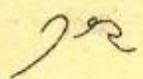
그를 만난는데



내가 산 배는



아주 먼 데로



* $\left\{ \begin{array}{l} \text{겠(으)} \\ \text{게} \end{array} \right.$ (차) $\left. \begin{array}{l} \text{하} \\ \text{게}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겠다} \\ \text{게금}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하게} \\ \text{하겠(으)}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하겠다} \\ \text{하게금}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게하게} \\ \text{게하겠(으)}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계하겠다} \\ \text{계하게금} \end{array} \right\}$ 겠으니

$\left. \begin{array}{l} \text{알겠다} \\ \text{알게금} \end{array} \right\}$ 일 하겠다

일 하게금

$\left. \begin{array}{l} \text{가계하겠다} \\ \text{가계하게금} \end{array} \right\}$ 살게 하겠으니

따르겠으니



보고하게 하겠다



보고하게 하게금

* 조사 "에" "에" 따른 기법

에는 --- ↘ 에도 - - - ↘ 에게 - - - ↘

에서 - - ↘ 에서는 - - ↘ 에서도 - - ↘

에 있어 ----- ✓ 에 있는 --- ✓ 에 있어도 --- ✓

에 있어서 --- ↘ 에 있어서는 ----- 에 있어서도 --- ↘

에 대 하 해 } ----- (에 +ㅅ)

에 대한 (것) --- ✓ 에 대할 (것) --- ↗ 에 대해서 --- ↘

에 대하여 --- ✓ 에 대하여는 --- ✓ 에 대하여도 --- ✓

에 대하여서 --- ✓ 에 대하여서는 --- ✓ 에 대하여서도 --- ✓

에 관 하 해 } ----- (2 층을 들어온 위치에서 “에” 교차)

에 관한 (것) --- ↘ 에 관할 (것) --- ↗ 에 관해서 --- ↘

에 관하여 --- ✓ 에 관하여는 --- ✓ 에 관하여도 --- ✓

에 관하여서 --- ✓ 에 관하여서는 --- ✓ 에 관하여서도 --- ✓

* 에 의 하 해 } ----- (8 층)

에 의한 (것) --- ↘ 에 의할 (것) --- ↗ 에 의해서 --- ↘

에 의하여 --- ✓ 에 의하여는 --- ✓ 에 의하여도 --- ✓

에 의하여서 --- ✓ 에 의하여서는 --- ✓ 에 의하여서도 --- ✓

※ 조사 “는데, 는데”에 따른 기법

는데 대 해 } ↘ (“에 대 해”의 변화와 같다)

는데 관 해 } ↘ (“에 관 해”의 변화와 같다)

는데의 해 } ↘ (8) (“에 의 해”의 변화와 같다)

는데 대 해 } ↘ (“에 대 해”의 변화와 같다)

는데 관 해 } ↘ (“에 관 해”의 변화와 같다)

는데 의 해 } ↘ (8) (“에 의 해”의 변화와 같다)

※ 조사 “을, 를”에 따른 기법

을 하 } --- (을)
를 위 해 }

을 위한 (것) --- ↗ 을 위 할 (것) --- ↗ 을 위해서 --- ↗
를 를 를

을 위하여 --- ↗ 을 위하여는 --- ↗ 을 위하여도 --- ↗
를 를 를

을 위하여서 -- 을 위하여서는 -- 을 위하여서도 --
를 를 를

* 기위하해 } (8 mm)

기위한(것) -- 기위할(것) -- 기위해서 --

기위하여 -- 기위하여는 -- 기위하여도 --

기위하여서 -- 기위하여서는 -- 기위하여서도 --

하기위하해 } -- 하기위한(것) -- 하기위할(것) --

* 종합연습 예제

국회에는 ↗ 서울에도 ↗ 친구에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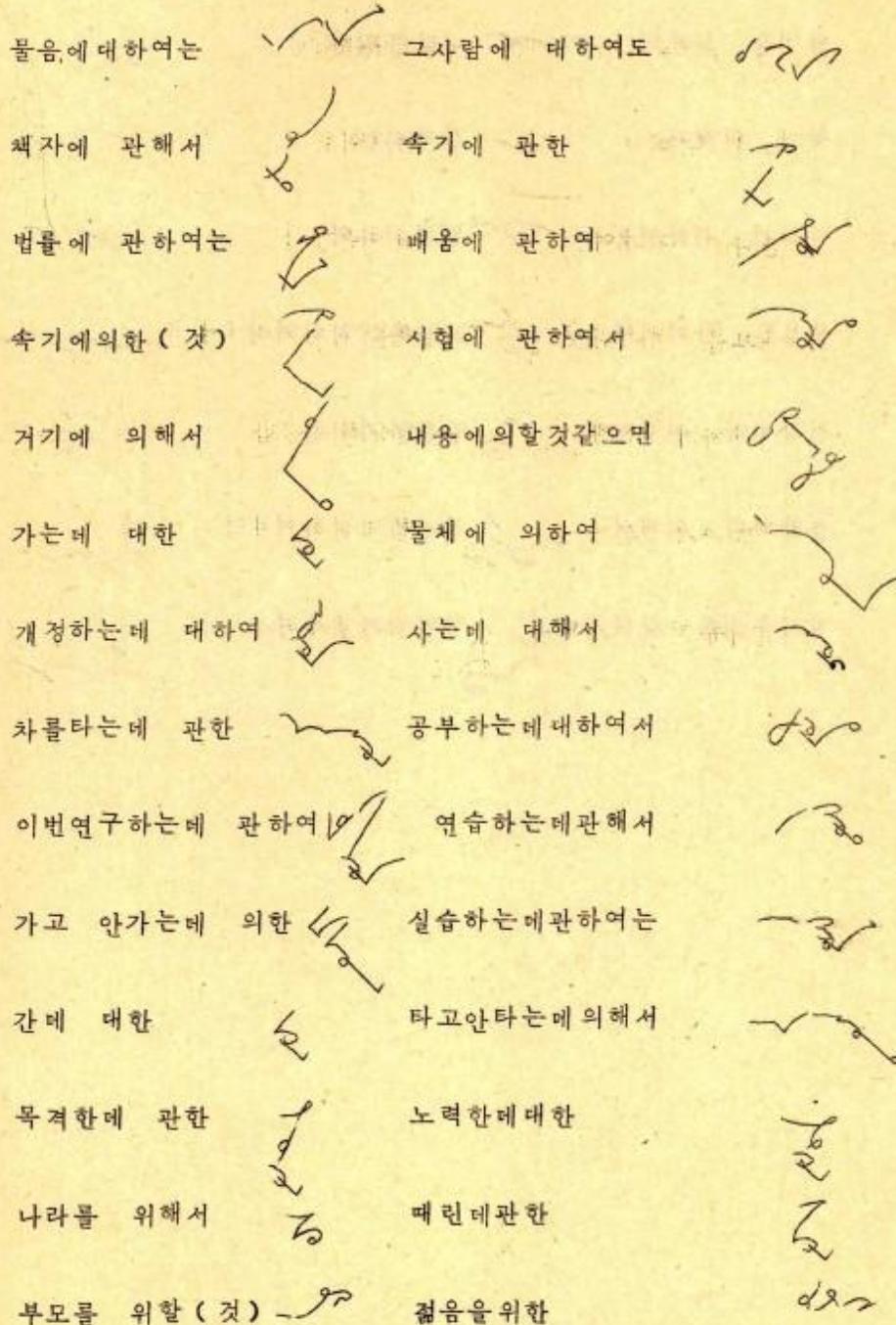
부산에서 -- 미국에서는 ↗ 정부에서도 ↘

여기에 있어 ↗ 문제에 있어는 ↗ 여기에 있어도 ↘

개정에 있어 써 ↗ 답변에 있어서는 ↗

질문에 있어서도 ↗ 정부의 답변에 대한 ↗

운영에 대해서 ↗ 시간에 대하여 ↗



당신을 위하여 - ～～ 나라를 위한

자

찾기 위해서 ～～ 살기 위한

～～

만나기 위하여는 ～～ 읽기 위하여

～～

공부를 하기 위해 ～～ 차를 타기 위하여

～～

건강하기 위해서 ～～ 일을 하기 위한

～～

출발하기 위해서 ～～ 전진하기 위하여

～～

질서유지를 위해서 ～～ 힘겨하기 위하여

～～

제 2 절 위치 이용기법 (位置利用記法) 및 수사 (數詞)

1. 점 (点) 및 위치 (位置) 이용기법 (利用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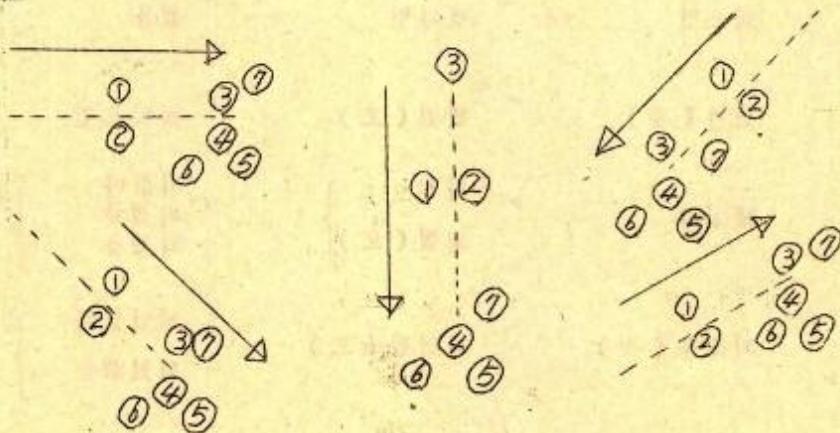
가점 (加点) : 점 (点)을 찍는 것을 말하며 다음 문자를 이어 쓰 때는 점의 위치에서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1 ㎜ 정도 띄어 쓴다.

위치 (位置) : 앞자의 지정 (指定) 된 어느 위치에서 다음 문자를 쓰며 위치 다음에 날말이 없는 경우는 가점을 한다.

위치 (位置) 및 가점 (加点)

원이 없는 문자는 자두와 자미를 기준하여 원이 있는 문자는 자두와 자종을 기준한다.

- (예) ① 자중간상 ② 자중간하
 ③ 자미(종) 직상 ④ 자미(종) 직하
 ⑤ 자미(종) 우사하 ⑥ 자미(종) 좌사하
 ⑦ 자미(종) 우사상



四

원이 없는 문자는 자미우사상 4mm 원이 있는 문자는 자종
우사상 4mm 위치이다.

되다 --- 된(다) --- 될(것)
(가 점) 된(것) --- 될(것)

됨 되는(것) } --- ↗ 되는 것 --- ↘ 되므로
됨으로

* 었(으) 였다 하였(으)
였(으) (4)였다 이었(으)

되던 --- 되었(으) --- 되었을(것) ---

되었다 되었던(것) 되었으면

되었다면 --- 됐 (으 . 다) --- 됐을 (것)

했으면 $\frac{d}{dt}$ 했다면 $\frac{d}{dt}$ 했을 $\frac{d}{dt}$

제작(경) ↗ 제작(우) ↗ 제작(우편)

※ 업, 법

앞자 중간상 2 ^{mm} 위치이다.

수업  과업  창업 

과업  광업을  학업도 

농업파  기업가의  청부업자 

민법  형법  군법 

판세법  민법을  군법회의 

※ 회(○)

앞자 중간하 2 ^{mm} 위치이다.

국회  산회  개회 

폐회  의사회  제2회 

※ 전, 점

(△)  가점을 하고 수직 또는 수평 2 ^{mm} 위치에서 다음자를 쓴다.

(○)  원이 없는 문자는 자미우사상 4 ^{mm} 위치 원이 있는 문자는 자종

우사상 4 ~~mm~~ 위치에 가점을 한다.

전 기 / 전 시 ˘ 전 진 ˘

전 문 . / 점 포 ˘ 점 령 ˘

점 수 ˘ 점 차 ˘ 점 화 ˘

전 전 / 무 전 ˘ 충전기 ˘

사전에서 ˘ 시점은 ˘ 기점을 ˘

동점을 — ˘ 지점에서 ˘ 서점으로 ˘

* 해
했 . 있 (으) } --- ˘ --- ˘ --- ˘ --- ˘ --- ˘ --- ˘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상 1 ~~mm~~ 들어간 위치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 자종상 1 ~~mm~~ 들어간 위치가 되나 위치는 원 밖
이 되어야 한다.

했다 } --- 했으면 } --- 했다면 } ---
있다 } --- 있으며 } --- 있다면 } ---

했고 } --- 했다고 } --- ~해가지고 ---
있고 } --- 있다고 } ---

했었(으) 했었다 } 하였(으) 이었(으) }
있었(으) 있었다 }

* 置(으) ---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우사하 4 번 위치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 자종우사하 4 번 위치이다.

없다 ----- 없으면 -----, 없다면 -----;

없고 ----- 없다고 ----- 없었(으)

없었다 ----- 없었으면 ----- 없었다면 -----

가점후 다음 문자의 자두가 점에서 1 mm정도 나오되 점과 선이 볼게 쓴다.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좌사하 4 ~~mm~~ 위치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 자종 좌사하 4 ~~mm~~ 위치이다.

적 기 / 적 군 / 적 자

적 수 접 대 척 사

적 도	→	첩 보	→	첩 자
기 적	/	추 적)	공 적
누 적)	간 접 (첩)	/	직 접
전 적	/	인기적	/	민 첨
수 첨)	적재적소)	호적초본
... 적인	--	기 적 적인	/	사 적인
오르, 올라 올리, 올려	{	--	/	/

앞자 중간 상 2 ~~째~~ 위치이다.

을랐(으, 다) - 을랐을(것) - 을랐음
(人)

을랐으면 - 18- 을랐다면 - 19- 오르는것 - 20-

* 드리, 드려, 들어 }
 들이, 들여

앞자 중간 하 2 ~~은~~ 위치이며 복수의 "들이"는 쓰지 않는다.

드린(것) --- 드릴(것) --- (드림) 드리는(것) ---

드렸(으, 다) --- 드렸을(것) --- 드렸음
들였(으, 다) --- 들였을(것) --- 들였음

들렸으면 } --- 드렸다면 } --- 드리는것
들였으면 } --- 들었다면 }

* 생각(하, 해) ---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직하 2 ^{mm}위치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 자종직하 2 ^{mm}위치이다.

생각한(것, 다) --- 생각할(것) --- (생각하는) --- 생각함 ---

생각하는것 --- 생각하면 --- 생각하니 ---

생각하였(으, 다) --- 생각하였으면 --- 생각하였다만 ---

* 위치+“해! 했, 있(으, 다), ” (위치에서 “하”)

생각했(으, 다) --- 생각했으면 --- 생각했다면 ---

생각했을(것) --- 생각했음 --- 생각했고 ---

※ 속, 족, 측, 석(△) -----

수평 또는 수직 2 mm정도의 직선을 세 준다음 그직선의 중간에 붙여 다음자를 쓴다.

(○) ---

앞자 중간 위치이다.

속 기 / 속 도 — 족 보 ✓

족 자 / 족 진 ↘ 족 탁 ↗

석 방 ↗ 석 유 ↗ 구 속 ↗

급 속 ↗ 가 족 ↗ 민 족 ↗

저 족 ↗ 재 족 ↗ 광 석 ↗

자 석 ↗ 구 속 역 ↗ 총 족 한 ↗

독 족 이 ↗ 방 석 을 ↗ 중 석 을 ↗

※ “ ” (○) ---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에서 1 mm 들어온 위치,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 자종에서 1 mm 들어온 위치이나 자미에 중복 되지 않도록 한다.

위치 다음에 "하, 이"는

생략

* ~대 (초자 다음에 “ ” 위치)

요권대	✓	요권대는	✓	보건대	✓
보건대는	✓	듣건대	✓	듣건대는	✓
원권대	✓	바라건대	*	알건대	✓

* 나오(다) } 나와 ----- ~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우사상 4 ~~mm~~위치에서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 자종 우사상 4 ~~mm~~위치에서 “나”자를 쓴다.

나온(것, 다) --- ↗ 나올(것) --- ↘ 나옴
나오는(것) } --- ↙

나왔(으, 다) --- ↗ 나왔을(것) --- ↗ 나왔음 --- ↗

나왔으니 --- 나왔다며 --- 나왔으면 ---

-94-

* ~등 --- .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 수평 2 mm 위치에 가점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 자종 수평 2 mm 위치에 가점한다

보는 등 ↗ 책자 등 ↗ 기술 등 ↗

아는 등 ↗ 먹는 등 ↗ 수영 등 ↗

* ~등등 --- ..

원이 없는 문자는 앞자 자미 수평 2 mm 위치에 가점후 가점
위치에서 다시 수평 2 mm 위치에 가점하며 원이 있는 문자는
앞자자종 수평 2 mm 위치에 가점후 가점위치에서 다시 수평 2 mm
위치에 가점한다.

국사 등등 ↗ 물건 등등 ↗ 책상 등등 ↗

2. 수사 (數詞)

숫자는 한자(漢字)나 아라비아 숫자와 달리 속기문자로서 표
기되며 아라비아 숫자와 같이 한자한자 띄어쓰게 되나 단위는
생략하고 수의 자리로서 읽게 된다.

*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편 구

↖ | ↗ ↗ ↗ ↗ ↗ ↗ ↗ ↗

(각 4 mm이다)

(예문)

159 109 248 100 636 606

875 100 4327 10010 66935 66900

※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역	조
	\swarrow	\downarrow	\nwarrow	\nearrow	\circlearrowleft	\nearrow	\nwarrow	\swarrow	\downarrow
	(8)	(15)	(4)	(4)	(8)	(15)	(4)	(8)	(8)

(예문)

20 100 40 100 90 100

160 100 1,600 100 1,680 100

300 100 605 100 2,007 100

5,000 100 3,017 100 38,000 100

76,005 100 80,008 100 60,000 100

205,000 100 4,004,000 100 30,000,000 100

※ 연속수(連續數)

2 이상의 숫자가 순차적으로 이어나올 때

5, 6, 7, 8 조 100 3, 4, 5 월에 100

245, 246, 247

1~7

34, 35, 36, 37

8~10

14.5 ~ 6조

1~7

27. 8. 9 항

1~9

※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 2 3 4 5 6 7 8 9 10
 (8)

(예문)

일곱 사람

3

마섯 분

5

여섯 둥치

8~10

여덟 포대

8

세 차

3

두 마차

2~3

※ 첫째, 둘째, 셋째 열 째

1 2 3

1

※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열 째로

1 2 3

1

※ 첫번, 두번, 세번 열 번

1 2 3

1~10

※ 한번, 이번, 전번

1 1 1

1~10

※ 첫째번, 둘째번, 셋째번 열째번

1 2 3

1

※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열번째

1 2 3

1~10

※ 년·월·일(年·月·日), 시·분(時·分)과 이에 따른 기법

년 - - - - " " 을 앞자자미 1~2 mm 들어온 위치에서
교차한다.

해 ---

(해) 위치제어

3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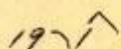


금년에



년도 --- 앞자 자미적상 2 mm 위치에서 조사 "도"

1971년도의



70년도는



주년 --- "ㅅ+ㄴ" 을 앞자자미(종) 1 ~ 2 mm 들어온 위치에서
교차한다.

3주년



8주년



주년기념 --- "○+ㄴ" 을 앞자자미(종) 1 ~ 2 mm 들어온 위치에
서 교차한다

2주년기념



5주년기념



해 --- (하)

몇 해

을 해

새 해

을 해

동안 --- ("ㅂ" 교차)

그동안



한동안



해동안 --- (ㅂ) 몇해동안 --- 한해동안



년동안 --- ("ㅅ+ㅂ") 3년동안



6년동안



-98-

월 (어) 7월 ✓ 월 달 ↗ (일)

일 --- (자미(종) 우사하 4째위치에서 "ㄱ")

1일 / 5일 ↗

년, 월, 일 기별 년 월 ("년, 월, 일"이 생략된다)
일

1945년 8월 15일은

19~8 ↗

70년 4월 5일 ↗ ↗

1969년 1월 8일 ↗ ↗

("제" 자를 써서 "19" 를 생략한다)

서기 1971년 9월 1일 ↗ ↗

("서" 자를 써서 "서기 19" 를 생략한다)

단기 4285년 3월 17일 ↗ ↗

("단" 자를 써서 "단기 42" 를 생략한다)

일날 --- ↗ 4일날 ↗ 휴일날 ↗)

(자미(종) 우사하 4째위치에 "날")

하루 / (자미(종)우사상 4mm 위치에 "ㄱ")

이틀 2' 사흘 3' 나흘 4'

하룻날 / (자미(종)우사상 4mm 위치에 "날")

이튿날 2' 사흘날 3' 나흘날 4'

주일 1' 일주일 2' (이주일) 3' 삼주일 4'

요일 1' (4mm) 일요일 2' 화요일 3' 수요일 4'

(시·분·초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시 1' (시) 아홉시 9' 열두시 12'

분 2' (분) 삼십분 30' 오십오분 55'

초 3' (초) 이십오초 25' 사십초 40'

시·분·초 가볍 시 분 초 "(시·분·초가 생략된다)"

9시 45분 25초

9 45
25

10시 10분 3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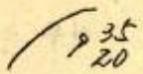
10 10
30

-100-

오전



(20 mm) 오전 9 시 35 분 20 초



오후



(20 mm) 오후 4 시 45 분



상오



(20 mm) 3 월 1 일 상오 10 시 30 분



하오



(20 mm) 5 일 날하오 5 시 25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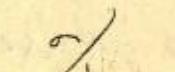


※ 분수(分数), 배분율(百分率), 구구법(九九法)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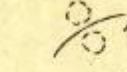
○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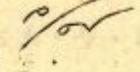
(20) 3 분지 2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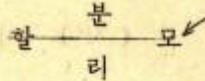
○분의○



(20) 5 분의 3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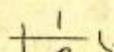


할·분·리·모(割·分·厘·毛)



(15)

2 할 2 부 5 리 8 모



3 할 5 부



6 할 5 부 6 리



7 할



퍼센트(%)



(15) 65 퍼센트까지는



퍼센테이지



(15) 그퍼센테이지는



프로(%)



(평) 5 6 프로



4 0 프로



프로베이지 --- (퍼·정) 프로네이지는

9·9 법 $2 \times 2 = 4$ | 6 $\times 9 = 54$ 60-

3 $\times 8 = 24$ 1 7 $\times 8 = 56$ 28

※ 기념일(紀念日) 약법

6·25 ⌂ 6·25 사변 ⌂ 6·25 동란 ⌂

5·16 ⌂ 5·16 군사혁명 ⌂ 5·16 혁명 ⌂

8·15 ⌂ 8·15 해방 ⌂

3·1 철 ⌂ 3·1 운동 ⌂

3·8 선 ⌂ (이상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단위(单位) 기법

원 ⌂ (₩) 36 원 ⌂ 50 원 ⌂

-102-

달러 ----- (Ⓜ) 356 달러 3,000 달러

불 ----- (Ⓝ) 278 불 400 불

석 ----- (위치) 350 만 석 200 만 석

섬 ----- (Ⓛ) 25,000 섬 156 만 섬

키로미터 ----- (KM) 시속 80 키로미터로

키로와트 ----- (KW) 30 키로와트

정보 ----- (버) 35,000 정보

톤 ----- (톤) 2,000 톤급 배

분기 ----- (앞자 중간에 "기"를 교차)

1 · 4 분기 / 2 · 4 분기 / 3 · 4 분기 /

제 3 절 부사 (副詞), 형용사 (形容詞), 동사 (動詞)

부정사 (否定詞)

1. 부 사 (副詞)

※ 또 ↗ (조사 ⑩ 방향의 '도')

나는 또 가겠다 ↗↗↗ 다음에 또 만나자 ↗↗↗

또는 ↗↖

자유 또는 죽임 ↗↖↗ 영어 또는 불어 ↗↖↖

또한번 ↗

또한번 일해보자 ↗↗↗ 또한번 가보고 ↗↗↗

※ 못 ↗---:---↗ ('ㄹ' 받침)

참을 못자고 ↗↗ 가지 못하고 ↗↗

※ 기로, 끼리 ↗ (각)

놀기로 하면 ↗↗ 당신들끼리 가시오 ↗↗↗↗

※ 다시 ↓ (8 번) ※당시 ↑ ※당신 ↓

다시 읽어 보아라 | 17 다시 상정하면 | ⑧

다시금

오랫만에 다시금 와서  다시금 찾아보니 ↓

다시는

다시는 오지않으리 ↗↗↗ 다시는 안 만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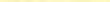
또다시 1 ※또한 2

또다시 만나서 1/10 또다시 하겠다면 1/9

다시한번 ↗

다음에 다시한번 만나서 미워도 다시한번

※ → 가장 (최)

가장 아름다운 꽃  베가 가장 으뜸이다 

※ 죽 (· ㄱ · 받침 독자)

노력은 즉 성공의 비결이다. *L'La.*

※ 벌써 ⓧ (어서)

벌써 봄이 왔다. 벌써 오는구나

※ 함께 { ('함+' 위치)

저쪽으로 함께 가자 } 우리 모두 함께

※ 와 } 함께 { ('와+' 위치)

나와 함께 가자 } 전우들과 함께

※ 물론 ↗ (문)

이것은 물론이고 ↗ 자작은 물론 결석도 ↗

※ 얼른 ↗ (월는)

사본을 얼른 만들어서 ↗ 모두 함께 떠나자 ↗

※ 오래 ↗ (옹)

꽤 오래된 일이다 ↗ 오래 된 것 같다 ↗

오랜 ↗ (오래+'ㄴ')

오랜 시간이 흘러 ↗ 오랜 옛이야기 ↗

※ 대체 ↗ (대체)

대체 어찌할 셈이냐 / 대체 이런 내용으로 /

도대체 ✓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 나도 도대체 모르는 일이고 /

※ 도리어 ↗ (도+려)

그것보다 도리어 낫다 ↗ 도리어 이 책이 좋은데 ↗

※ 오히려 ↗ (외+려)

네가 오히려 잘한다 ↗ 어제보다 오히려 좋은데 ↗

※ 서로 ↗ (조사 '서' + '로')

서로 손 잡고 ↗ 서로 돋고 살자 ↗

※ 더욱 ↗ (더)

이것이 더욱 좋다 ↗ 더욱 빛이 난다 ↗

※ 머우기나 ↗

머우기나 그렇게 해주면 되겠느냐 ↗

※ 머구나 ↗ (더+나)

늦어도 안된다는에 며구나 불참이라 ㅋㅋㅋㅋㅋ

※ 鄭君子 十

여군다나 어렵지  여군다나 배가 한다고 

※ 먼저 ↗ (먼)

내가 먼저 가겠다 496 내가 먼저 떠나고 49-8

* 모든 (문)

모든 일이 잘된다 9/1 모든 사람이

※ 아무 (4 mm의 우반원)

아무 얘기도 필요없다  아무 소리 말고

아트리

아부리 생각해도

양문법

아무런 이유도 없이

※ 밤드시 (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오도록 하겠오

※ 드디어 (수)

드디어 찾았다 ↗ ↘ 드디어 출발이다 ↗ ↘

※ 어째 ↗ (어+자)

오늘은 어째 기분이 좋다 ↗ ↘ ↗ ↘ ↗ ↘

어째서 ↗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 ↘ ↗ ↘ ↗ ↘

어젯든 ↗

어젯든 만나서 좋다 ↗ ↘ ↗ ↘ ↗ ↘

어전 ↗

어전 일로 왔느냐 ↗ ↘ ↗ ↘ ↗ ↘

※ 머불어

파
와 } 머불어

('어'를 앞자 중간에 교차)

영어와 머불어 수학도, 친구와 머불어서 ↗ ↘ ↗ ↘ ↗ ↘

※ 아울어

파
와 } 아울러

('러'를 앞자 중간에 교차)

노래와 아울러 춤도 ↗ ↘ ↗ ↘ ↗ ↘ 운동파 아울러 학파도 ↗ ↘ ↗ ↘ ↗ ↘

※ 일부러 ↗ (일+러)

일부러 찾아 왔구나 ↗ ↘ ↗ ↘ ↗ ↘

※ 다가 ↗ (닥)

하다가
이다가 } ↗ ↘ ↗ ↘ ↗ ↘

—○○○—

※ 마침 ㄱ (소원+마) 마침 잘 왔다 ㄱ ㄴ

마침내 ㄱ 마침내 이루었다 ㄱ ㄴ

마침내는 ㅅ 마침내는 살았다 ㅅ ㅅ

※ 하여튼 ㄴ (하+반) 하여튼 시작해라 ㄴ ㄹ

※ 여하튼 ㄴ (여+반) 여하튼 잘해야한다 ㄴ ㅌ

※ 도록, 조록 — (독)

죽도록 애써서 ㄴ 아무조록 결약해서 ㄴ ㅋ

※ 무엇 ㄱ (멋) 무엇이냐 하면 ㅌ

※ 어느 ㅁ 어느날 본 사람이 ㅌ ㅌ

어느것 ㄴ 어느것이 좋으냐 ㅌ ㅌ

어느때 ㄴ 어느때나 오느냐 ㅌ ㅌ

※ 구태여 ㅁ (윙)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구태여 해야 하느냐 ㄴ ㅁ ㅌ

※ 심지어 ㅂ (윙)

그때 당시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다. 1961

※ 비록(독자) } ← (빛)

내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아니~~ 학생을 비롯하여 15명

※ 하물며 ↗ (하+며) 하물며 둘 물에 비하랴 ↗—↗

※ 로하여금 × (로+금) 나로 하여금 . . . ×

※ 그리 . 그려 . 그래 } / (기)
그려나 (독자) }

그런 (것) ↗ 그럴 (것) ↗ 그럼 ↗

그래서 / 그렇 게 / 그러 한 그

그래도 ↗ 그런데 ↗ 그러면 ↗ ~~어디~~ 2³/₈ 다^n

그리고 ↗ 그러므로 ↗ 그래서는 ↘

그러는데 ↘ * 그렇고 ↗ 그랬(으.다) ↗

그랬고 1 그랬으나 2 그랬다고 1

※ 이리, 이어, 아래 }
이러나(독자) } (어)

이런(것) ↗ 이럴(것) ↗ 이럴

이래서 ↗ 이랑게 ↗ 이랑한

이래도 ↗ 이런데 ↗ 이라면

이려고 ↗ 이러므로 ↗ 이래서는

※이랑고 ✕ 이랬(으·다) ↗ 이랬고 ↗

※ 저리 · 저래 · 저리
저려나(독자) }) (지)

저런(것) ↗ 저럴(것) ↗ 저럴

저래서 ↗ 저랑게 ↗ 저랑한

저래도 ↗ 저런데 ↗ 저라면

저려고 ↗ 저러므로 ↗ 저래서는

※저랑고 ✕ 저랬(으·다) ↗ 저랬고 ↗

※ 어서 · 아서 · 와서 ↗ (어+서)

먹어서 ↗ 졸아서 ↗ 고와서 ↗

※자면 --> . (잔)

가자면 ↗ 알차면 ↗ 걸자면 ↗

※ 는지 --- ~ (녕)

따르는지 زو 놀는지 ㅕ ㅠ는지 ㅡ

일하는지 ㅓ ㅠ 하는지 ㅓ 필요로하는지 ㅓㅓ

※ 은지 -- ㅓ (옹)

살은지 ㅓ 죽은지 ㅓ 닭은지 ㅓ

※ 거니 와 -- ㅓ (거+와)

우리가 알거니 와 ㅓㅓ 먼거 가거니 와 ㅓㅓ

※ 려니 와 -- ㅓ (려+와)

귀추를 보려니 와 ㅓㅓ 심사 하려니 와 ㅓㅓ

※~ 다시피 -- ㅓ (피)

보다 시피 ㅓ 뛰다시피 ㅓ

※~ 시다시피 -- ㅓ (앞자 중간에 "피" 교차)

보시다시피 ㅓ 사시다시피 ㅓ

※ ㄴ 고로 -- ㅓ (앞자 자미에 "고+로")

어계는 논고로 ㅓㅓ 감고로 ㅓ 내린고로 ㅓㅓ

※ 기필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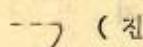
※ 기어코



※ 부르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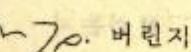


※ 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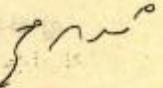


(진)

차를 탄지 오래이다



버린지 얼마나 돼요



※ 다만



("다" 자 중간 2 mm 위치에 가점)

※ 왔(으.다)



(4 mm 半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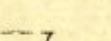
왔을(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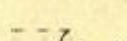
왔음



왔으니



왔다니



지금쯤 왔을 것이다



집에 갔다 왔으니



다녀 왔다니



따라 왔다고



※ 3음(音) "이.히" 약법

3음째 자에 "이.히" 가 오는 경우 "초자+이.히" 가 되나

약간의 예외가 있으며 아래의 예에 한정해 쓰게되고 3음째

자에 '...한'이 오는 경우에는 '이, 하'에 'ㄴ' 받침만
을 한다.

※ 간단히	ʃ	※ 간절히	ʃ	간략히	ʃ
※ 간곡히	tʃ	※ 공연히	tʃ	공고히	tʃ
※ 당연히	tʃ	※ 당당히	tʃ	넉넉히	tʃ
※ 명확히	ʃ	※ 명백히	ʃ	매단히	tʃ
※ 무사히	tʃ	※ 무수히	tʃ	몇몇이	tʃ
※ 정확히	tʃ	※ 정당히	tʃ	똑똑히	tʃ
※ 조급히	tʃ	※ 조속히	tʃ	조용히	tʃ
※ 적당히	tʃ	※ 직절히	tʃ	마땅히	tʃ
※ 업격히	tʃ	※ 업연히	tʃ	박연히	tʃ
여하히	tʃ	분명히	tʃ	꾸준히	tʃ
견고히	tʃ	깨끗이	tʃ	절실히	tʃ
※ 가만이	tʃ	※ 가까이	tʃ	도경히	tʃ

※ 일제히	※ 일일이	낱낱이
간단한	간절한	간략한
간곡한	공연한	넉넉한
당연한	당당한	조용한

2. 형용사 (形容詞)

※ 다르 (다) (異)
달라 } (다 + 소원)

다른 (것) 모양이 아주 다른 것

다를 (것) 얼굴이 다를 것이다

다름 다른을 분간 못하고

달라서 서로 달라서

달랐 (으. 다) 결과가 달랐다

※ 과 } 다르 (다)
와 } 달라 (며)

과 } 다른 (것) 그것과 다른것을 가지고

파
와 } 다를 (것)

그릇파 다를 것 일세

-117-

파
와 } 다른

모르는 것과 다른 없고

파
와 }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파
와 } 달랐 (으 , 다)

모두 달랐으나

※ 고심 (으 . 다)

(계) ※ 하고 싶 (으 . 다)

가고 싶다

살고 싶으나

고심은 (것)

자고 싶은 것을 참고

고심을 (것)

오고 싶을 것이지만

고심음

가고 싶음을 어찌하리

※ 기쉬우 (위)
기쉽 (다)

※ 하기쉬우 (위)
하기쉽 (다)

알기쉬우니

보기 쉽게

기 쉬운 (것)

나타내기 쉬운 (것)

기 쉬울 (것)

이기기 쉬울 것이다

기 쉬움

털락하기 쉬움을 극복하다

* '나'어' 기법 (각 행의 '나'를 쓸)

구어 Ⓛ 누어 Ⓜ 두어 Ⓝ 루어 Ⓞ 무어 Ⓟ

부어 수어 주어 지어 } 추어 푸어 6

불에 구어라 불밭에 누어서

참고에 가두어라 24 남에게 주어서 기쁘다 25

※ 산(으. 어. 탄)

기습 (으 . 어 . 다) } (15)

(15)

베가 정말 싫다면 매우 싫어서

싫었(으.어) ; 기싫었(으.어) ↗ 아주 싫었으나

싫었다
기싫었다 } 보면 싫었다

배우기 쉽으면 보기 쉽다면

일기싫었으니 1. ~여나기 싫었으나

놀기 싫었다 물기 싫었다

하기싫(으.어.다) 일하기 싫어서

하기싫었(으.어) ↗ 공부하기 싫었으면 ↗

하기싫었다 ↗ 자랑하기 싫었다고 ↗

※ ㅂ(다) } ~울(것) ~울(것) ~움
ㅏ워(우) ↗ (되) ↗ ↗ ↗ ↗

※ ㅂ·ㅂ(다)
ㅓ워(우) } ↗ ↗ ↗ ↗
ㅓ워(우) ↗ (되)

※ -럼(다)
-러워(우) } ↗ (되) ↗ ↗ ↗

※ 噗(다)
로워(우) } ↗ (되) ↗ ↗ ↗

※ ㅂ(다)
ㅣ워(우) } ↗ (되) ↗ ↗ ↗

아름다운 꽃 ↗ 참다운 모습 ↗ ↗

정다운 친구 ↗ 반가움에 ↗ ↗

고마운 마음 ↗ 아까워 말라 ↗ ↗

귀여운 동생 ↗ 즐거운 나의집 ↗ ↗

- 두꺼운 종이 부러움을 느끼다
- 고생스러운 생활 한스러운 옛날
- 징그러워서 피한다 고통스러움을 참다
- 부드러운 질문 만족스러워서
- 슬기로운 지혜 새로운 생각
- 괴로움의 연속 가파로운 언덕
- 졸리워서 알미운 사람
- 팔리워진 나무 그리운 마음
- 어찌 (엇)
-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러면 어찌하리
- 어떠한 수단이라도 어떠한 책이든지
- 어떤 (것)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 어떻 (것) 이방법이 어떻게까요
- 어떻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3. 동사 (動詞)

※ 물라
모르(다) } ↗ (모)

모른(것) ↗ 모를(것) ↗ 모름
모르는(것) }

몰랐(으.다) ↗ 몰랐음 ↗ 몰랐으면 ↗

몰랐다면 ↗ 몰랐었(으) ↗ 몰랐었다 ↗

나도 모르고 있 ↗
는 것이다 ↗ 오늘 안건은 잘
모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기의 책임을 ↗
모르는 것은 ↗ 나도 전연 모를
일이에요 ↗

아직도 모르는 ↗ 주요 글자를 몰
일이 많아서 ↗ 랐다면 ↗

철차를 몰았으면 ↗ 아직도 모르는다면 ↗

※ 바라
기바라 }) (히)

바랐(으.다) } 하기 바랐(으.다) -->

바랐으면 바랐다면 -->

하기 바랐으면 하기 바랐다면 -->

※ 기울(으.) --> (으.며) 바라기를 -->

원만한 해결을 잘되기를 바랐다면 -->

성원이 되기 를 연구하기를 바랐으나 -->

회합이 있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

부결 되기 를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

※ 시키 } (깃)
시켜 -->

시킨(것) --- 시킬(것) --- 시키는(것)
시킴 } ---

시켰(으.다) --- 시켰을(것) --- 시키기를
시키고 } ---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시켜놓고 } --- 통파 시키고자
하는데 } ---

잘못 시킨 일 이요 } --- 심부름을 시킬
것은 } ---

다른 사람을 시킬 일 이지 } --- 그를 시키는것이
못마땅 해서 } ---

당신을 시켰으면 } --- 나에게 그일을
시켰다면 } ---

※ 지키 } --- 지켜 (빛)

지킬(것) --- 지킬(것) --- 지키는(것)
지킴 } ---

지쳤(으.다) --- 지쳤을(것) --- 지키기를

도둑을 지키는
일이 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은

나는 약속을
지켰다 시간을 지켰음에
도 불구하고

※ 지마 } 하지마 } 지 말기를
지말 } (8mm) 하지말 }

보지 마는것이 가지 말고

침범하지 말아 오지 마세요
라

※ 주시 . 주셔 } 주시기 (죄)

주신 (것) 주실 (것) 주시는 (것) } 주심

주셨 (으 . 다) 주셨을 (것) 주시기 를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오 동의해 주셔서

밀어 주시기는 와 주신 것을
커녕

보내 주실 것은 알려 주시는 것이

도와 주셨으나 받아 주셨다면

바꾸어 주셨을 팔아 주셨으면
것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열어 주셔서

※ 해주시 해주셔 } 해주시기 } (“해” 위치에서 “죄”)

해주신 (것) 해주실 (것) 해주시는 (것) }
해주시기 해주심

해 주셨 (으) 해 주셨을 (것) 해 주시기 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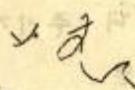
심사보고 해주 협조해 주신 일은
시기 바랍니다

취급해 주실 염려해 주시는 덕에
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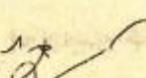
물건을 찾게
해 주셨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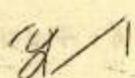
고맙게 대해 주셨
을 것으로 알고



말씀해 주실
문은



안내해 주실 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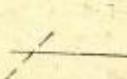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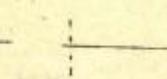
소개해 주실 것
으로 믿고



교환해 주셨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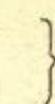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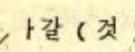


※ ㅏ가 (다) }
ㅓ가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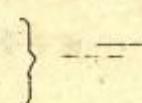


(초자 중간상 2mm 위치에서 20mm 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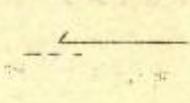
ㅏ간 (다. 것) }
ㅓ간 (다. 것) }



ㅏ감
ㅓ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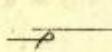
ㅏ갔 (으다)
ㅓ갔 (으다)



들어가다



돌아가 라



걸어간다



날아갈



것은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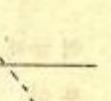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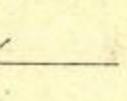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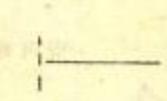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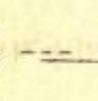
갔으면



잡아갔다



※ ㅓ나 (다) }
ㅏ나 (다) }



(변화는 '다가(다)'와 같다)
 (가(다))
 (초자: 중간하 2^째 위치에서 20^째직선)

늘어나다 ↗ 달아난다 ↗ 솟아 날것으로 ↗
 돌아났고 ↙ 늘어났으니 ↙ 블어 났다면 ↗

* 『+다』 } ✓ ↗ ↙ ↗ > ↗ ↗ ↗ ↗ ↗

* 『우다』 } ↓
 『으다』 }

삼그다 ✓ 견느다 ↗ 다르다 ↗

기르다 ↗ 조르다 ↗ 가꾸다 ✓

가누다 ↗ 미루다 ↗ 다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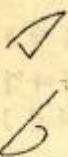
* 『+다』 } ↗ ↗ ↗ ↗ ↗ ----- * 『운다』 } ↗
 『-다』 }

가꾼다 ↗ 겨눈다 ↗ 다른다 ↗

다룬다 ↗ 삼근다 ↗ 걸는다 ↗

* 『+다』 ✓ ↗ ↗ ↗ > ↗ ↗ ↗ ↗ ↗ ↗

어 기다



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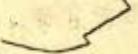
살피다



꾸미다



누비다



풀리다



※ 같다



('이다' '인다' 는 암씀)

즐진다



살린다



밀린다



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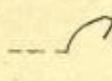
다닌다



맡긴다



※ 지못 ^하
해 }



(8 mm)

~한 (것)



~할 (것)



~하는 (것)



~해도



~한데



~하지못 ^하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

가지고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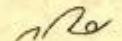
떠나지 못한 것은



출근치 못할 것 이니



알지 못하는 것은



살지 못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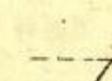
밀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 지가 못 ^하
해 }



(8 mm)

~한(것)



~할(것)



하는(것)

함



~해도



~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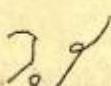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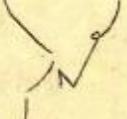
~해서



사이가 좋지가



품질이 좋지가 못하고



못해서

고르지가 못한테



전실치가 못해도



※ 지는 못해



(변화 "지가 못해"와 같다)

죽지는 못하고



찾지는 못해서



용감하지는 못



높이 오르지는



했지만

못해도

※ 지도 못해



(변화 "지가 못해"와 같다)

잡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한것은



따르지도 못하게



출발하지도 못했으니



※ 지를 못해



(변화 "지가 못해"와 같다)

늘지를 못하게



걷지를 못해요



밀지를 못한 것은



닫지를 못해서



떠나지를 못해서



설명하지를 못했는데



먹지를 못해서



내리지를 못한 것은



알지를 못했는데



가지를 못하느냐



※ 에 따라
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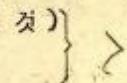
(에라)

에 따른(것)



~를(것)

에 따르는(것)



에 따라서



에 따랐(으, 다)



(변화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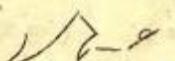
설명에 따라



학자에 따라서



질문에 따른



학설에 따를 것

답변

같으면

답변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



가지고

※ 에 이르



(자미 지하 2nd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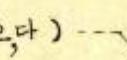
에 이르려



에 이르른(것)



에 이르렀(으, 다)



그곳에 이르러

거기에 이르러

※ ㅅㅅ(으, 다) ("ㅅ" 받침이 붙은 자를 앞자 자
미에 ㅅ받침을 결쳐 준다)

잠을 잤다

잠을 잤다고

잠을 잤으니

※ 움직이(다)
움직여

동(動)

~인(것)

~일(것)

~이는(것)

~임

~였(으, 다)

~였으나

~였다면

물체가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지금 움직인것이

조금씩 움직일 땐 데

저기 움직이는것이

바람에 움직였다고

힘을 가하니

많이 움직였으니

움직였다고

움직이는 것이

조금도 움직이지

보인다

말아라

※ 셨(으, 다)

셌을(것)

셌음

썼으면

썼다면

오래 사셨으니

여기서 보셨으니

잘모르셨을 것이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 해왔(으,다) (4mm) .(애)

해왔음 해왔음

문의해 왔다면 성공해 왔으니

구비해 왔으면 질문해 왔을적에

※ 로 말미암아
으로

그일로 말미암아 오해로 말미암아

※ ㄴ다 ("오"자의 소원을 편 형태)

산다 간다 봤다

논다면 안다면 쉰다면

※ 부치 부쳐
붙이 붙여

부친(것) 부칠(것) 부침

※ 부쳤(으,다)
붙였(으,다)

편지를 부치고 벼보를 뿜여놓고

오늘 부쳤다 나도 뿐였으나

4. 부정사 (否定詞)

※ 아니 - - - +

(앞자 자미(종)에서 1~2 ~~mm~~ 들어온 위치에서 + "이"
교차)

공부 아니 할수 없다 ~~A~~ 참석을 아니 하겠다 ~~X~~

※ 이아니+

(앞자 자미(종)에서 1~2 ~~mm~~ 들어온 위치에서 "이" 교차)

그런것이 아니라 ~~f~~ 쓰기만 할것이 아니고 ~~f~~

※ 만아니 (앞자 중간에 + "이" 교차)

만아니 라 - + - 만아니고 - + -

좋은 것만 아니라 ~~f~~ 노래만 아니고 ~~f~~

모양만 아니라 ~~f~~ 속기만 아니고 ~~X~~

※ 만이아니 - + - (앞자중간에 "이" 교차)

만이아니 라 - + - 만이아니고 - + -

돈만이 아니라 ~~f~~ 정부만이 아니고 ~~X~~

사람만이 아니라 ~~f~~ 재산만이 아니고 ~~X~~

※ ~게아니 --- (" ㅔ " 위치에서 " 개 ")

~게아니라 --- ~게아니고 ---

쓸게 아니라 읽어라 3 / 썰게 아니라 일을해라 7 4

※ 아닌게 아니 ---

(앞자, 자미에서 1 ~ 2 mm 들어온 위치에서 " 입 " 교차 + " ㅔ " 위치이다.)

아닌게 아니라 --- 아닌게 아니고 ---

동일은 아닌게 아니라 우리의 시급한 과제이다 1 4 7 4

※ ~뿐아니 --- (" 뿐 "에서 1 ~ 2 mm 들어온 위치에 " 이 " 교차)

~뿐아니라 1 ~뿐아니고 1 ~뿐아니니 1

과학뿐아니라 예능도 하자



※ ~뿐만아니 --- (" 뿐 " 자 중간에 " 이 " 교차)

~뿐만아니라 1 ~뿐만아니고 1 ~뿐만아니니 1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 문이 아니 ("뿐"에서 1~2mm 들어온 위치에
"이" 교차)

~뿐이 아니라 문이아니고 문이아니니

권리문이 아니라 의무도

※ ~뿐만이 아니 ("뿐"자 중간에 "이" 교차)

~뿐만이아니라 문만이아니고 문만이아니니

찬성뿐만이 아니고

※ ~없이 (앞자 자미에 "이"의 충간을 결친다)

빈틈없이 둘림없이 끊임없이

관계없이 상관없이

둘림없이 비가 올것이다 법률과 관계없이

※ ~안~ (앞자 다음에 "되" 위치에서 20mm의 잠선을 긋고 "안"자를 써서 약한다.)

앞자 다음에 "되" 위치에서 20mm의 잠선을 긋고 "안"자를
써서 약한다.

주느냐 안주느냐 ↗———— 통파되느냐 통파안되느냐 ↘————

※ ~아니~ ——————

앞자 다음에 "되" 위치에서 20mm의 장선을 긋고 "아" 자를
써서 약한다.

가고 아니 가고는 <————↗ 먹느냐 아니 먹느냐 ↗————

살고 아니 살고 ↗———— 보느냐 아니 보느냐 ↘————

※ ~못~ ——————

앞자 다음에 "되" 위치에서 20mm의 장선을 긋고 "못" 자를
써서 약한다.

자고 못자고 <———— 팔고 못팔고 ↗————

※ 반대 어 (反對語)

앞자 자미 (종) 우측에 1mm 띄어 "V" (2mm정도)의 부호
를 한다

찬성 반대

V~V

가결 부결



좌충 우돌



차 카고 포 카고



남자 여자



좋다 싫다



울고 웃고		한대 온대	
출생 사망		전진 후퇴	
천당 지옥		우등 열등	
밀물 썰물		신사 숙녀	
적자 흑자		늙은이 젊은이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일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

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화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책임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앞으로는 국
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
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
다.

제 4 장 약자(略字)와 약법(略法)

제 1 절 약 자 와 속 어 약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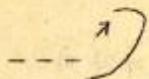
1. 약 자 (略字)

약자란 빈도수가 많은 단어(单語)로서 그 단어에 국한하여 부여한 부호문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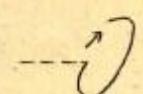
대한민국		(대+국)	국가		(위치)					
의원·위원		(언)	회의		(15mm)					
다음		~은		우리						
사람		일반								
현재		(하+대원)	~도		~는		~에는			
지금		(허)	~은		~도					
때문(에)		기때문(에)		(완)	(완)	까닭(에)	기까닭(에)			(8mm)
불구하고		(2mm)	고사하고		(2mm)					
막론하고			불문하고							
무릅쓰고			반면에							
말이놓고										

-140-

동시에



(과·와) 동시에



앞으로

八 뒷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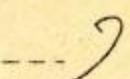
千 밑 바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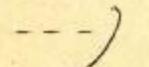
둘러싼



둘러쌓고



에워싼



에워쌓고



오늘

夕 ~날

夕 (위치)

~날까지



그것

夕 ~은

夕 ~도

夕

이것

夕 ~은

夕 ~도

夕

저것

夕 ~은

夕 ~도

夕

여러

夕 (4 mm)

~가지

夕 ~번

夕 ~차례

夕 ~분



~개

夕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의 정치를 하고있고

6



우리

八



의원들은 회의를 할 때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토론한다.

자유롭게 토론한다.

헌법 2 (협) 대통령 — (15)

부통령 — (15) 의장 ↗ (15)

부의장 ↗ (15) 위원장 ↗ (8)

위원회 ↗ (위치) 국회 의원 ↗

국무위원 ↗ 전문위원 ↗

(예문)

우리나라 헌법 내용에는 대통령은 국무위원이나 국회 의원을 겸직

못하도록 되어 있고 부통령제도가 없다.

못하도록 되어 있고 부통령제도가 없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리한다.

보고

✓

(2)

보고사항

✓

정부

✓

정부당국

✓

예산

✓

총합

✓

원안

✓

(위아)

정책

✓

질의

✓

질문

✓

정책질의

✓

경제

○

(4 mm)

경제개발

✓

(예문)

정부는 국회에 매년 예산을 제출하면 국회의원은 예산에 수반된

경제 사회 문화 정치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정부당국에 질의를 하며

○ ✓ ✓ ✓ ✓ ✓ ✓

보고를 듣는다.

선 거

~

부정 선 거



공명 선 거



부정 축재



소 위



(8)

본회의



(15)

분의원
본위원



상임 위원



상임위원회



(위치) 방 법



(봄)

심사



(수) 정 치



(체)

금융



(경제+느) 산업



(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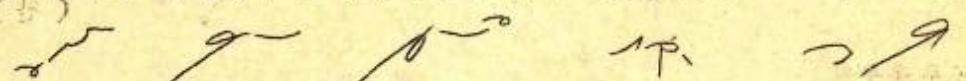
(8) 계 속



(15)

(예문)

선거 때마다 부정 선거니 공명 선거니 해서 말썽이 되고 소위 부정



축재 문제도 겜들여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 주	↖	민주주의	↑
공 산	✓	공산주의	↙
자 본	↓	자본주의	↖
자 유	↙	자유주의	↖
제 국	↙	제국주의	↖
민 족	↖	민족주의	↑
사 회	↔	사회주의	↔
독 재	→	독재주의	←
쇄 국	↔ (15)	쇄국주의	↔
기회, 기본	↙	기회주의	↖
담 변	↖ (8)	담 당	↖ (4)
장 판	↑ (잔)	차 판	↘ (.찬)
공무원	↙ ↴	외 교	↗ ↴
통 일	↖ (4)	긴 금	↙ (급)

논의 ()

제도 ()

()

(예문)

모든 국가를 정치형태로 분류하면 민주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 ✗ ✗ ✗ ✗ ✗ ✗

자본주의국가 등으로 분류된다.

✗ ✗ ✗

국회는 외교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 긴급 논의한 결과 정부의

✓ ✗ ✗ ✗ ✗ ✗ ✗

관계장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는데 차관이 대리로

✓ ✗ ✗ ✗ ✗ ✗

답변하였다.

✓

여당

✓ ↙

야당

↖

공화당

+

민주공화당

+

민주당

1

신민당

~~

대중당  결파  (거다)
 결국  자기자신  (나는)
 자기  (작) 국방  (궁)
 제출  (젤) 무손  (무)
 (예문)

우리나라 정당은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을

     
 위시하여 민주당 자유당 대중당등 여러 정당이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방예산을 증액 제출하고 있다.

의견 }  (인) 찬성 

결론  반대  (반+八)

정도  전부 

이 내 | (위치) 이 외 | (위치)

행 정 | (항) 행정부 |

조 직 | (직+小円) 국 군 | (2 mm)

통 화 | (동화) 차 이 | (출)

(예문)

지금 국군에 관한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고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찬성과 반대의 표결로 결정한다.

은 행 | 태 도 |

철 도 || (4) 토 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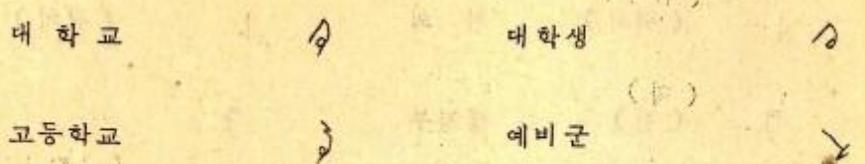
토의사항 | 소 송 |

부 익 부 | 빈 익빈 |

훈련 |

학 교 | 학 생 |

-148-



(예문)

대학교학생과 고등학교학생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은 부익부 빈익빈에 있다고 한다.

향토예비군 투표 (15)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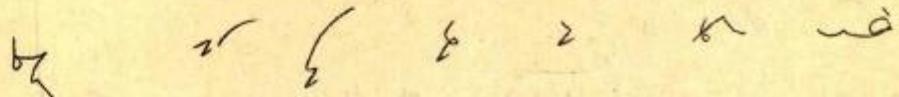
육해공군

경찰 경찰서 경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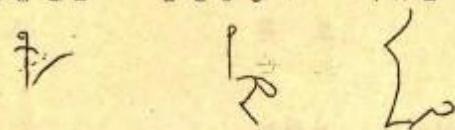
경찰관 경찰 검찰 검찰청

(예문)

우리나라의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나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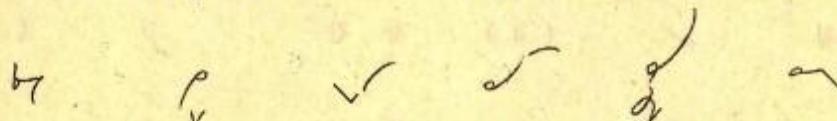
있고 사법경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정신	（ 4 ）	금리	（ 8 ）
중심		기판	
채임		기간	
권리	（ 리 ）		（ 8 ）
수입	（ 8 ）	수출	（ 8 ）
수출입	（ 1 ）	세입	（ 8 ）
세출	（ 8 ）	세입세출	（ 8 ）

(예문)

우리나라의 세입세출 예산은 세출을 책정한 다음에



세입을 책정한다.

발언	✓	(4)	발안	✓
발의	✓	토론	✓	✓
전의	✓	(거니)	전의안	✓
의사진행발언	✗	규칙발언	✓	✓
동의	✓	(동)	재정	✓ (정)
동의안	✓	발표	✓	(15)
입법	✓	(위치)	사법	✓ (위치)
입법기관	✓	사법부	✓	✓
입법부	✓			
부문	✗	(2)	운동	✓ (8)
방침	✓	(4)	잠간	✓ (4)
요즈음	✗	독립	✓	

즉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요사이 활발하다.

개정 결의

개정안 ✓

개정법 (위치) 결의안

개정법률 ✓ (위치)

이
기

三
三

五
六

신문

공동

弓 銅

통과

정 세

부 결

(4) 가 결

국가정

국제정

계획

경계계호

5개년계획

경제개발계획

납득

(예문)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생각은 모두가 자기의

生产能力을 이용하여 생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경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정세와

국제정세를 고찰하여야 한다.

건설

총선거

설명

부분

(분)

내부분

소득

생활

특별

총분

연설회의

위원회회의

원 인	✓	(닌 + 小円)	자문위원	✓
일반회계	✗	(일 + 개)	특별회계	✓
회계년도	✗		미구년도	✓
이 유	✓	(4)	이유는	↗↓
결 산	✓		예산결산	✓
결산안	✓		예산결산안	✓✓
법 안	✓	(번)	의의 { 이의 }	↴ (8)
법률	✓	(법률)	법률안	✓
관 계	✓		관계부처	✓
근 대	✓		현 대	✓
예산안	✓		예산심의	✓
국무회의	✓		나 라	✓
당 국	✓		관계당국	✓
농작물	✓		농산물	✓

수산물	↗	농수산물	↖
농산물가격	↖	잉여농산물	↙
잉여농산물가격	↑	생산	↘
외자도입	↖	의사당	↗
외곡도입	↖	양곡도입	↖
농어민	↗	농촌	↗
농어촌	↗	농어촌개발 (위치)	↗

(예문)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갖는다.

관계당국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과 잉여농산물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한 결과 먼저 농작물 농산물

수산물 잉여농산물에 대한 조사기일이 필요하니 기일을

달라 요청

표결

기립표결

거수표결

이자

의장대리

위원장대리

국고채무

국고채무부담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보조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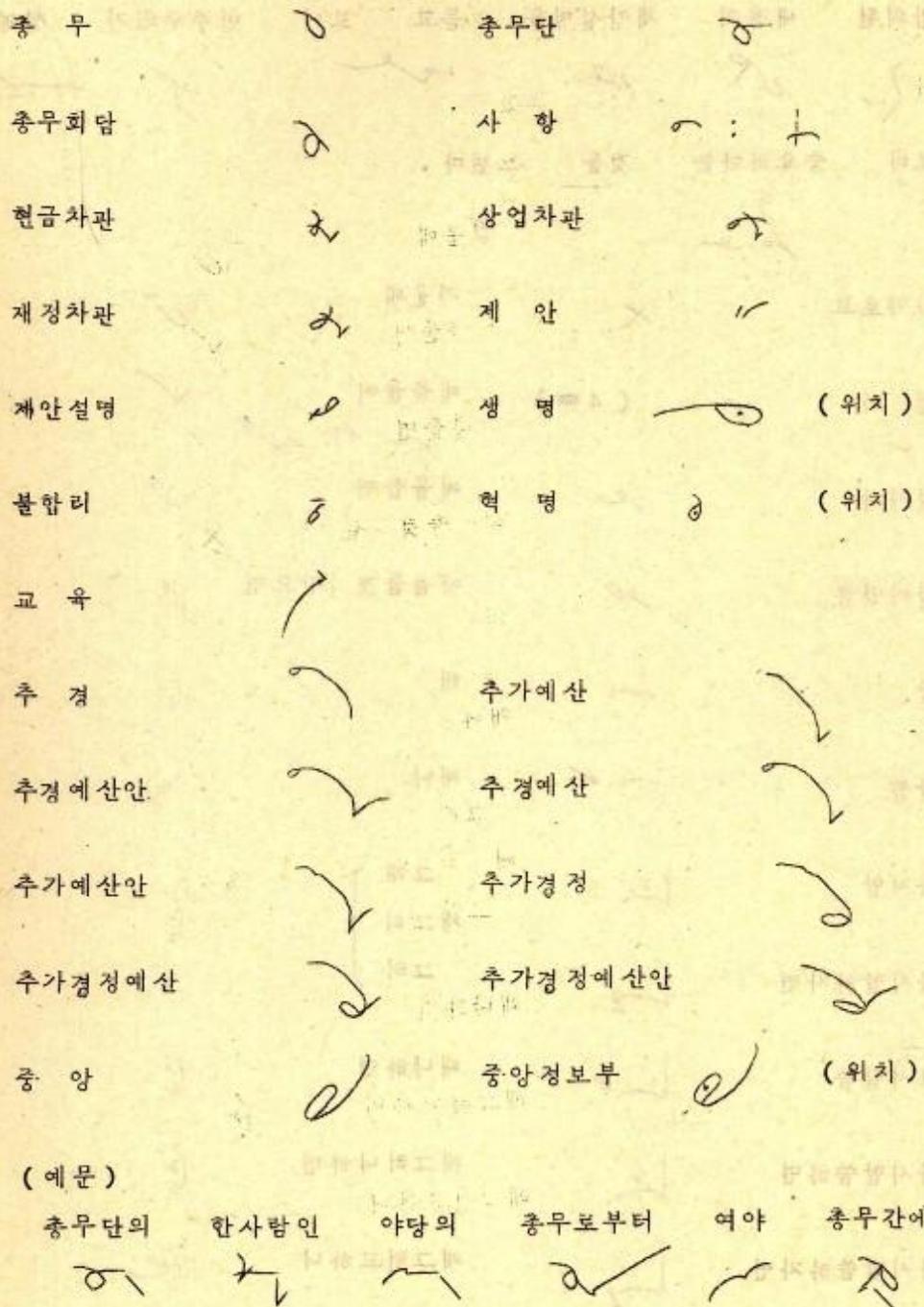
속기록

회의록

운영

회담

보도



합의된 내용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 민주주의가 생명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바야흐로



가운데



얼마



(4mm)

예를들어



얼마나



예를들면



얼마만큼



예를들것 같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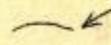
말



왜



말씀



왜냐



다시말



그래
왜그리
그려



다시말하자면



왜냐하면



다시말씀하면



왜그려냐하면



다시말씀하자면



왜그런고하니



다시 말씀을 리면	ㄴ	왜 냐 할 것 같으면	}				
다시 말씀드리면	ㄴ	왜 그려 냐 할 것 같으면	}				
다시 말씀을 리자면	ㄴ						
다시 말씀드리자면	ㄴ						
(이) 야말로	—	("말씀" 으로 앞자를 덮음)					
마찬가지	— ↗	마찬가지로	— ↗ ↘				
(파) 와 마찬가지	— ↗	(파) 와 마찬가지로	— ↗ ↘				
조금	○	(소원)					
~온	↖	~도	↗	~만	↖	조그마하다	↗
어 제	↗	그 제	↖				
어 저께	↗	그 저께	↖				
엊그제	↗	엊그제	↖				
엊그저께	↗	엊그저께	↖				
대 규모	+	(대 + 조사 "도")		대 다수	+	(대 + 고)	

소규모

총규모

다대수

2. 4 속어 약자

△ 초자와 3음자를 중간교차

의사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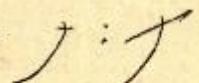
만장일치



자초지종



불철주야



일사천리



여야일치



의사일정



△ 초자와 3음자를 병행 또는 이어씀.

부정부폐



자금자족



자계각종



당리당략



사리사욕



비밀비재



설왕설래



칠두칠미



적재적소



정강정책



* 다다익선



* 명명백배



* 뒤죽박죽



* 옥신각신



* 오손도손



* 아기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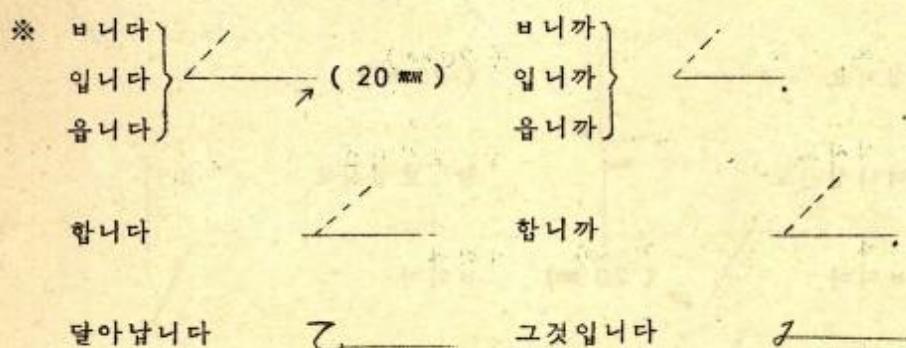


△ 초자와 4 음자를 중간 교차

긴급동의	✓	주요골자	✓	사사건건	✗
수수방관	✗	시시비비	✗	우궁무진	✗
정정당당	✗	허송세월	✗	탁상공론	✗
부모형제	✓ :	방방곡곡	✓	칠전팔기	✗
무장공비	✓	재일교포	✗	남북통일	+(난=남)
국토통일	✗	농공병진	✗	※ 대체토론	✗

제 2 절 약법 (略法)

1. 끌말약법



대통령입니다 ————— 회의를 합니다

말을 잘 합니다 ————— 이리로 옵니다

그사람입니까 ————— 그것이 문제입니까

* 보시다 · 을시다
이을시다
바이을시다

갑시다 ————— 봅시다

그것이 올시다 ————— 그런 내용으로 합시다

오늘 합시다 ————— 아는바이을시다

* 바입니다
는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아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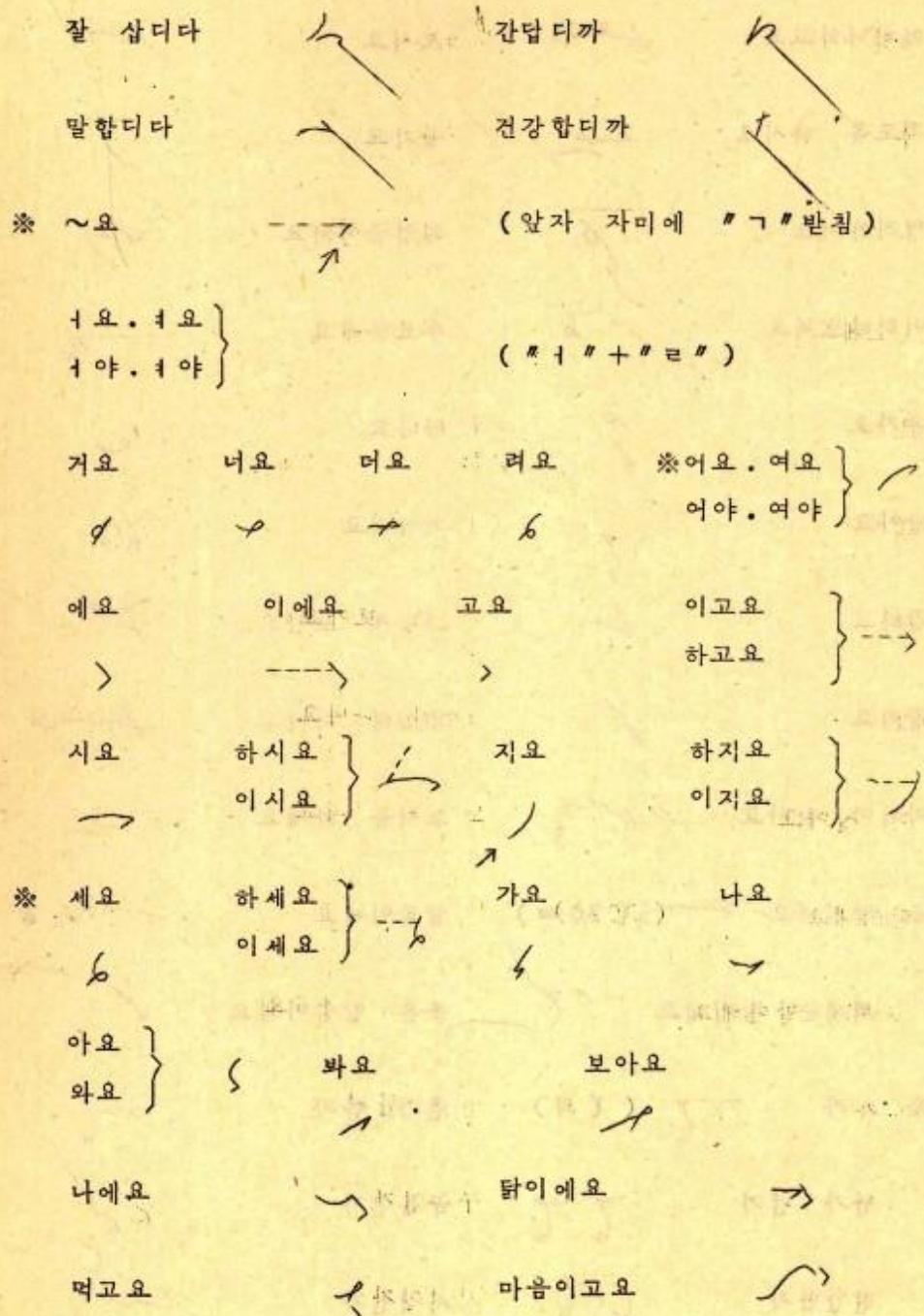
* 십시요

떠나십시요 ————— 잘 보십시오

* 보디다

함디다 ————— 보디까

함디까



어머니하고요



보시요



가도록 하시요



살지요



영리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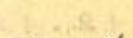
의연금이지요



이리나오세요



투표하세요



올까요



왔나요



널까요



기어와요



잘봐요



그렇게 보아요



갈거요



조심해 다녀요



먹어야 살아요



노력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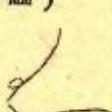
※ 말이에요

(20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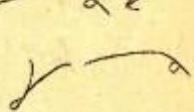
말씀이에요



책에는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 나가

--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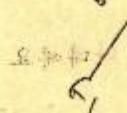
인가 · 한가



난가 넌가



구름인가



편안한가



사실인가



* 는가 --- (8 mm) 하는가 ---

사는가 ? 양보하는가 ↗

옮기는가는 주력하는가 ↗

* 느냐 --- (능 + "ㄱ ") 하느냐 ---

명령을 거역하느냐 ↗ 아느냐 ↗

어디 가느냐 ↗ 언제 입학하느냐 ↗

* 머냐 --- (등 + "ㄱ ") 하드(더)나 ↗

아직 있머나 ↗ 동의하머나 ↗

살고있머나 ↗ 모집하머나 ↗

어미 "ㄹ . 을 . 를 "에 따른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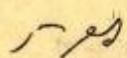
* (을 . 를) 것을 --- ("ㅅ " + 을)

빨리 잊을 것을 ↗ 놓을것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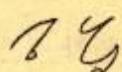
그대로 남을것을 ↗ 그를 떠를것을 ↗

* (ㄹ . 을 . 를) 망정 ↗ (마 +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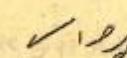
망을 불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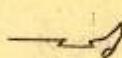
여기서 내릴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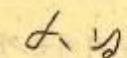
비록 못먹을 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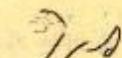
뒤 따를 망정



공부는 못할 망정



참가는 안할망정



* (ㄹ . 을 . 를) 지라도

(지 + 조사 "도")

혹 알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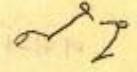
저렇게 늘지라도



은혜를 갚을지라도



상표는 다를지라도



살게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 (ㄹ . 을 . 를) 전대

(전 + "네")

일기를 불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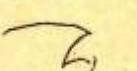
먹을전대



당신을 따를전대



수리를 할전대



* (ㄹ . 을 . 를) 지언정

(정 +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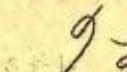
사고가 날지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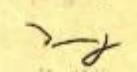
참을 지언정



공중을 나를지언정



착실할 지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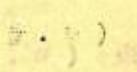


* (ㄹ . 을 . 를) 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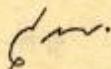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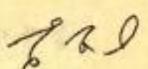
(록)



잘수록 태산이다



불수록 아름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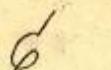


~면~수록



(리+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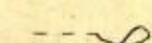
가면 잘수록



살면 살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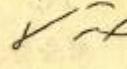


※ (ㄹ.을.를)는지



(농+〃〃)

그분을 알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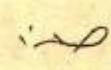
곧 죽을는지



잘 기를는지



무사할는지



※ 같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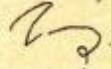
(ㄹ.을.를) 것 같으면 } {-z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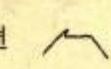
지금도 그때 같으면



어린시절 같으면



바다에 갈것 같으면



이약을 먹을것 같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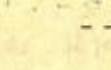
너무 고를것 같으면



노력만 할것 같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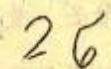


※ (ㄹ.을.를)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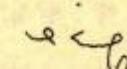


(〃와〃의 배+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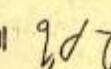
아직도 잘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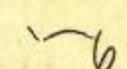
너무높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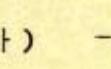
당신도 꽤 따를텐데



무심할텐데



※ (ㄹ.을.를) 줄(아)



(〃줄〃의 배)

물가가 오를줄아나

이

쉽게 잡을줄 아니

이

이름을 부들줄아니까

이

편지 할줄 아시요

이

~안(것)

이

을줄 안것이 잘못이야

이

~알(것)

이

그럼을 볼줄 알면

이

~암, 아는(것)

이

참을줄 아는 사람이

이

* (ㄹ·을·를) 줄로(아)

이

(지+타원)

당선 될줄로 아니

이

먹을 줄로 아니

이

짐을 나를줄로 아세요

이

기억할 줄로 아니

이

반길줄로 알아요

이

꼭 올줄로 안다

이

2. 동행약법 (同行略法)

동행자 (同行字) 음 (音) 이 이어 나올때 쓰는 기법으로서 앞자에 받침이 있어도 가능하나 남용은 불가하며 아 약법은 변자가 아닌 기본문자에 한하여 쓰되 약자화하여 쓰게 된다.

* 〃 〃 약법

이

이

이

이

이

OA 방향으로 2 mm의 직선을 앞자자미(종)에서 쓰게 된다.

지조 미묘 기교 타도
산소 상소 비보 사소
생소 주조 제조

00 방향의 2mm 직선이다.							
강구	↗	자주	↖	사수	↖	공구	↙
첨추	↘	분부	↖	충추	↘	빈부	↖
실수	↖	선수	↘	소수	↖	신수	↖
재주	↖	질주	↖	지주	↖	식수	↖
척추	↗	손수	↖				

* " | " 약법 --- | | | |

OB 방향의 2mm 직선이다.

자기 / 차치 ㄱ 지지 ㄱ 고기 ㄱ

처치 ㄱ 중지 ㄱ 착취 ㄱ 초치 ㄱ

청취 ㄱ 중치 ㄱ 방비 ㄱ 순시 ㄱ

실시 ㄱ 잡기 ㄱ 경기 ㄱ 제기 ㄱ

공기 ㄱ 국기 ㄱ 군기 ㄱ

* " ㅋ " 약법 --- ㄴ ㄴ ㄴ ㄴ ㄴ

자재 ㄴ 토대 ㅡ 다대 ㅡ 주재 ㄴ

분배 ㄱ ㅡ 보배 ㄱ 고개 ㄱ 잠재 ㄱ

존재 ㄴ ㅡ 가개 ㄴ 때때 ㄱ

3. 연속음 (連続音) 약법

(같은자 이어쓰기)

* 한자 (- 음) 인 경우 --- (" 적 " 위치)

자자 ㄱ ㅋ ㅋ ㅋ ㅋ 개개인 ㅋ

딱딱한 ㄱ ㄱ ㄱ ㄱ 구구절 절 ㄱ

연속음 + "하게" —— (속음 위치에 "개")

넉넉하게 ↗ 첨첨하게 ↗ 쟁쟁하게 ↗

* 두자 이상인 경우 ————— (20mm)

사바사바 ~ 조용조용 ↗ 씨르릉씨르릉 ↗

* 3음 동행(同行) 중간 약법

3음자에 있어 초자와 3음자가 동행 음자(音字)인 경우 중간자를 약하고 초자와 3음자만 표기한다.

나타나(다) ~ 나타난(것) ~ 나타날(것) ~

나타내(다) ~ 나타낸(것) ~ 나타낼(것) ~

나타났(으. 다) ~ 나타냈(으. 다) ~ 나타냈고 ~

아세아 ↗ 마지막 ↗ 부가불 —

너무나 ↗ ~자마자 —~ ~나마나 —~~

4. 동종성(同終聲) 약법

명사에 있어서 같은 받침(ㄱ-ㄱ, ㄴ-ㄴ, ㄹ-ㄹ, ㅁ-ㅁ, ㅂ-ㅂ

ㅅ-ㅅ, ㅇ-ㅇ)이 이어 나올 때와 겸용되는 받침(ㄱ-ㄹ, ㄴ-ㅇ

ㅅ-ㅂ 및 ㄹ-ㄱ, ㅇ-ㄴ, ㅂ-ㅅ) 이 이어 나올 때 받침을 모두
약하고 기본문자로만 표기하나 변자나 약자가 그 보다 간편한 것
은 이약법을 쓰지 아니한다.

(ㄱ-ㄱ)

각박	↖	낙착	↘	독직	↗	악독	↙
독학	↖	목축	↗	즉작	↘	적식	↖
혹독	↖	곡식	↖	극복	↗	박식	↖
식목	↘	숙지	↗	악착	↖	익숙	↖
적극	↘	획득	↗	회책	↖	흑백	↗

(ㄹ-ㄹ)

결역	↖	몰살	↗	발달	↖	절실	↖
실질	↖	결말	↖	꼴몰	↗	물질	↖
발굴	↖	살벌	↖	돌발	↖	결실	↖
돌출	↖	출발	↗				

(ㄱ - ㅂ)

식별	~	작별	✓	낙찰	~	악질	✓
각 출	↙	학벌	✓	확실	↙	각별	✓

(ㄹ - ㄱ)

달력	✓	실력	✓	절약	✓	몰각	✓
별목	✓	실직	✓	절벽	✓	질식	✓

(ㄴ - ㄴ)

간단	↖	간편	↖	관전 (권)	↗	관련	↖
산간	↗	인연	✓	견본	↗	산판	↗
선언	↖	분간	↗	근본	↗	논단	↖
논난	↖	반환	↗	반란	↗	순진	↗
선전	↗	신원	↗	언론	↗	안전	↗
원만	↖	완전	↙	인민	✓	인신	↖

인원 ✓ 인준 ↗ 천연 ✓ 혼란 ↘

(○-○)

양양 ↗ 방송 ↙ 방향 ↗ 경향 ↘

영향 ↗ 강당 ↙ 경영 ↗ 상당 ↘

공영 ↗ 강행 ↙ 광경 } 강경 ↗ 경상 ↘

공명 ↗ 공중 ↙ 방공 ↗ 상정 ↘

상황 ↗ 응징 ↙ 장황 ↗ 중농 ↘

증상 ↗ 충성 ↙ 중앙 ↗ 향상 }

(ㄴ-○)

면장 ↗ 민중 ↗ 변상 ↗ 반영 }

손상 ↗ 인상 ↗ 평성 ↗ 날방 ↗

난상 ↗ 범영 ↗ 완강 ↗ 원망 ↗

원정 ↗ 원용 ↗ 인생 ↗ 현명 ↗

현상 2 환송 1 판정 3

(ㅇ - ㄴ)

낭군	7	왕진	3	옹변	8	중단	2
중순	1	함변	2	황흔	3	행운	9

(ㅁ - ㅁ)

암담	1	감염	5	점심	1	험담	2
범람	7	감금	6	남침	2	삼엄	✓
임검	1	침법	7	탐험	3		

(ㅂ - ㅂ)

납입	1	협잡	3	삽입	7	합법	8
답습	1						

(ㅅ - ㅅ)

삿갓	7	웃깃	1
----	---	----	---

(八一四)

웃음

(四一八)

갑을

5. 장선(長線) 약법

◎ 「ㄹ수있」기법

• ㄹ 수가 있(으, 다)

ㄹ 수만 있(으·다)

• 수도 있(으·다)

• 수 일(으·다)

ㄹ 수는 있(으·다)

* 은수있(으.다) (20mm)

~은(것)

~을 (것)

~음
는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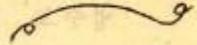
24

~할수있(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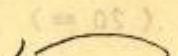
갈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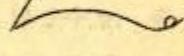
올수 있으면



잘 될수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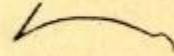
그럴수 있는것은



가질수 있겠으나



그럴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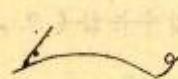
일할수 있다



공부할수 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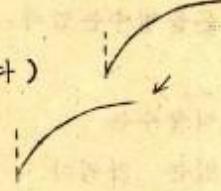
그렇게 할수
있으면



파할수 있겠으나



*ㄹ수도 있(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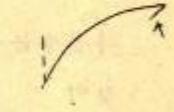


(20 mm)

~온(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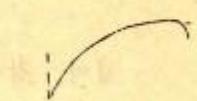
~을(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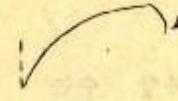
~음
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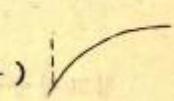
~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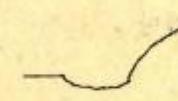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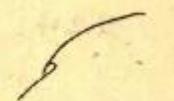
할수도 있(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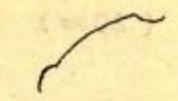
다닐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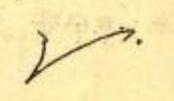
볼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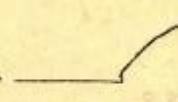
알수도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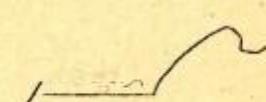
고칠수도 있을



둘수도 있는것은



일어날수도



있겠으나

낼 수도 있겠다

개정할 수도 있다

* 르수는 있 (으 . 다)

(20 mm)

~은 (것)

~을 (것)

~음

는 (것)

~겠으

~겠다

~할 수는 있 (으 . 다)

눌 수는 있으나

돈을 벌 수는 있다

나갈 수는 있는

이끌 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걸어 갈 수는

돌아 올 수는

있겠으나

있겠다.

참고 할 수는

통과 할 수는

있으나

있었다.

* 르수만 있 (으 . 다)

(20 mm)

~은 (것)

~을 (것)

~음

는 (것)

~겠으

~겠다
그릴수만 있으면
을수만 있는것이
아니고
상정할 수만 있
다면

할수만 있(으.다)
실수만 있다면
개정할 수만 있
다면
출수만 있을까

* ㄹ수가 있(으.다) (20mm)

~은(것)
~음
는(것)
~겠다
건질수가 있느냐
내릴수가 있으면
만나 볼수가
있을 것이다

~을(것)
~겠으
할수가 있(으.다)
꺼낼수가 있다
그럴수가 있는것은
조용할 수가 있겠나

◎ 「ㄹ수 없」기법

ㄹ수도 없(으.다)

ㄹ수 없(으.다)

ㄹ수가 없(으.다)

ㄹ수는 없(으.다)

ㄹ수만 없(으.다)

* ㄹ수 없
(으.다)

* ㄹ수도 없
(으.다)

* ㄹ수는 없
(으.다)

* ㄹ수만 없
(으.다)

* ㄹ수가 없
(으.다)

* 할수 없
(으.다)

(변화는 "ㄹ수 있(으.다)"와 같다)

믿을수 없
는 것은

잊을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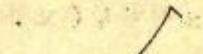
배울수가 없
음이

먹을수 없는
것이

사랑할 수
없으면



떠날수도 없.
고



만질수도
없다면



열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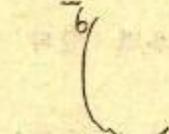
탈수는 없
는 것이다



노동할 수는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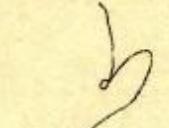
불행할 수
만 없으니



행복할 수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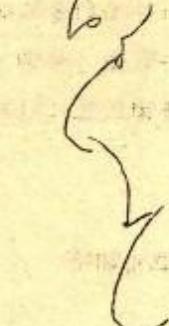
헤어질수가
없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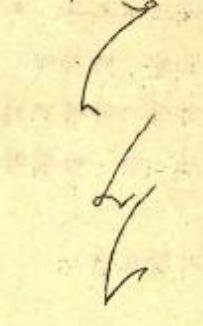
가릴수가 없
다면



지울수가
없으므로



넣을수 가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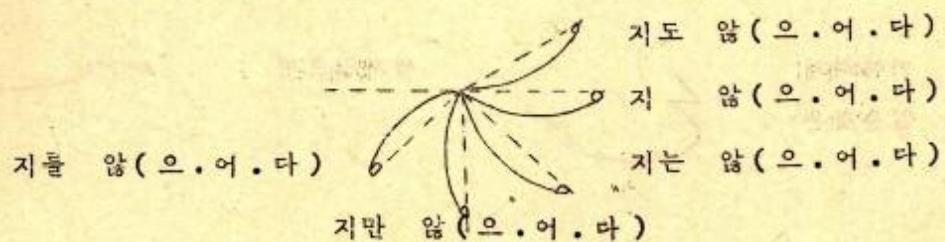


출발할 수
가 없으니



제산할 수
가 없어요

◎「지 않」기법



※ 지 않(으. 어. 다)		(20mm)
~은(것)		~을(것)
~음 는(것)		~겠으
~겠다		하지 않(으. 어. 다)
~으면		~으면 안되
~으면 아니되		하지 않으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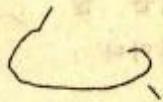
“지 않으면”은 “지 않”의 원을 편 형태(갈고리)에서 그대로 자 미만을 빼치며 “지 않으면 안되”는 원을 펴준 형태에서 중앙의 위치가 되며 “지 않으면 아니되”는 “지 않으면 안되” 위치의 직하가 되나 선 바깥의 위치이다.

일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보지 않은 것은		울지 않을 것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셋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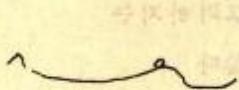
쓸지 않으면
안되니



가리지 않으
면 아니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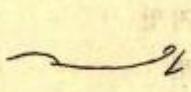
묻지 않겠
으니



미워하지 않
으리



말하지 않
다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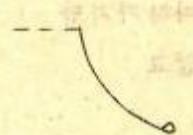
공부하지 않으
면 아니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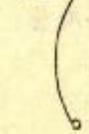
* 지도 않
(으.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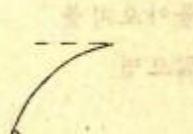
* 지는 않
(으.어.다)



* 지만 않
(으.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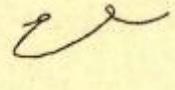


* 지를 않
(으.어.다)



(변화는 "지 않(으어다)" 와 같다)

버리지도
않으니



작지도 않
다



싫지도 않
은 것이



믿지 않으면



걸지 않으면
안된다



잡지 않으면
아니되고



크지는 않
으니



멀지는 않
다



아침지는 않
을 것이다.

입지는 않
겠으니

꾸지람 하지
는 않는다

그려 하지는
않다

놀지만 않으
면

그렇지만
않다면

따라가지만
않고

바라지를 않을
것이다

돌아오지를
않으면

사랑하지를
않으니

불러오지를
않으니

질문하지를
않으니

◎ 「지아니 하(다)」기법

지들 아니하(다)
해

지만 아니하(·다)
해

지도 아니하(다)
해

지 아니하(다)
해

지는 아니하(다)
해

※ 지 아니하(다) 해		(20 mm)	
~한(것)		~할(것)	
~함 하는(것)		~겠으 ~해서	
~겠다		하지아니하(다) 하지아니해	
~하면		~하면 안되	
~하면 아니되		하지아니하면	
하지 아니하면 안되		하지아니하면 아니되	
~했(으.다)		("했(으.다)" 위치)	

『지아니하면』은 『지아니하(다)』의 자미에 소원을 불인후 『ㄴ』

받침을 하며 『지아니하면 안되』와 『지아니하면 아니되』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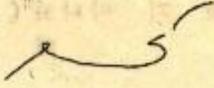
는 『지않』기법의 『지않으면 안되』, 『지않으면 아니되』의 위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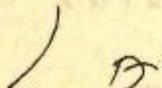
가지아니 했
다



보지아니한 것은



주지아니 할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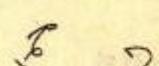
살지아니함



가지아니 하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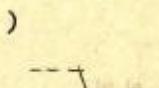
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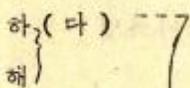
* 지도아니 하
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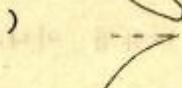
* 지는아니 하
해} (다)



* 지만아니 하
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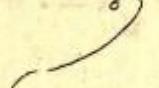


* 지를아니 하
해} (다)



(변하는 "지아니 하(다)" 와 같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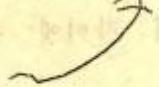
않지도 아니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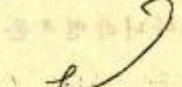
월지도 아니한
것은



사지도 아니
할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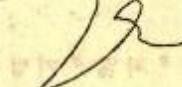
먹지도 아니
하는



듣지도 아니하면
아니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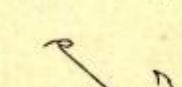
주지도 아니
하겠으니



주저하지도 아
니한다



쓰지는 아니
하고



쉬지는 아니하고 투자는 아니함

주자는 아니하 좋아하시는 아
겠으나 니하고

가지만 아니한 놀지를 아니
다면 한다

가지를 아니한 사지를 아니
것이 할 것이고

애쓰지는 아니 먹지를 아니하면
하는 아니되는데

◎ 「근수밖에 없」기법

근수밖에 없(으.다)

근수밖에 없(으.다)

근수밖에는 없(으.다)

(근수밖에 만없(으.다))

* 근수 밖에 없(으.다) (20mm)

~온(것)

~을(것)

~음
는(것)



~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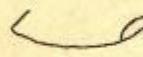
~겠다



할수밖에 없
(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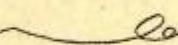
갈수밖에
없다



그럴수 밖에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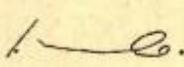
살수밖에
없는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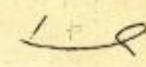
을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할 수 밖
에 없고



* 근수 밖에도
없(으.다)



*근수 밖에는
없(으.다)



* 근수 밖에만
없(으.다)



(변화는 근수밖에 없(으.다)와 같다)

이질수 밖에
는 없다



모를수 밖에
는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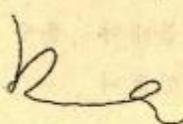
죽일수 밖에
는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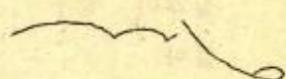
떠날수 밖에
는 없는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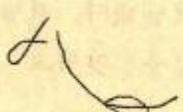
해어 질 수 밖
에 없겠으나



수신할 수 밖
에는 없다



공부할 수 밖
에는 없으니



앉을 수 밖에
만 없었고



빌 수 밖에
없었다



떨어질수 밖에
는 없지



◎ 「그래야 그 수 없」 기법

그래야 그 수도 없(으.다)

그 래 야 그 수 없(으.다)

그래야 고수가 없(으.다)

그 래 야 그 수는 없 (으 . 다)

근래야 근수만 없(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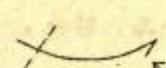
* 끄래야 끄수 없(으.다)

(20 mm)

~은(것)



~을(것)



~음 }
는(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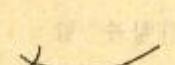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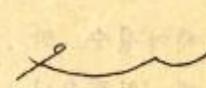
할래야 할수
없(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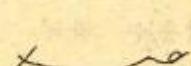
잘래야 잘수
없다



볼래야 볼수
없으니



갈래야 갈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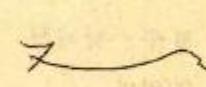
떠날래야 떠날수
없을 것이고



올래야 올수
없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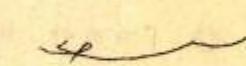
나갈래야 나갈수
없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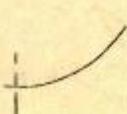
일할래야 일
할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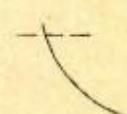
노력할래야 노력
할 수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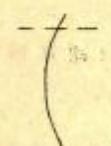
* 르래야 르수도
없(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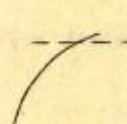
*르래야 르수는
없(으.다)



* 르래야 르수만
없(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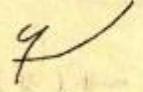


*르래야 르수가
없(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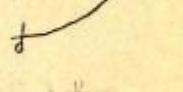


(변화는 "르래야 르수가 없(으.다)"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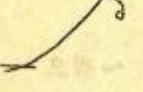
내릴래야 내릴
수도 없다.



올래야 올수도
없으니



털래야 털수도
없는데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다



알래야 알수도
없겠다

잊을래야 잊을
수는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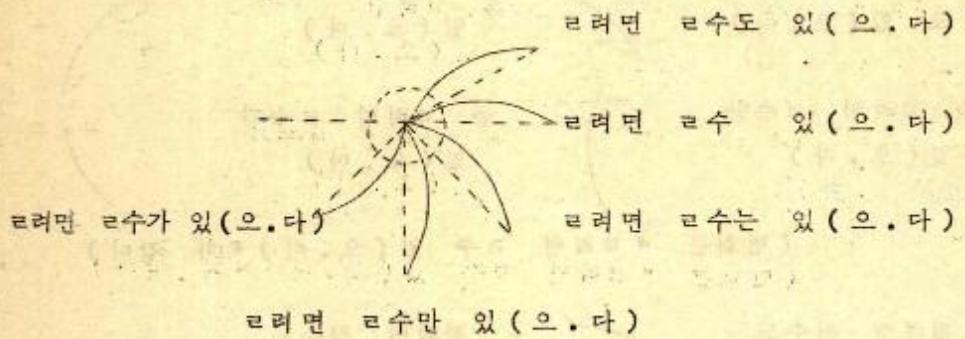
만날래야 만날
수는 없는것이고

부를래야 부를
수는 없고

열래야 열수가
없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으니

◎ 「려면 ㄹ수 있」기법



* 려면 ㄹ수 있(으.다)

(20mm)

~은(것)

~을(것)

~음
는(것)

~겠으

~겠다

할려면 할수
있(으.다)

먹을려면 먹을
수 있는데



알려면 알수
있으니



볼려면 볼수
있을 것이고



참을려면 참을
수 있지만



떠들려면 떠
들수 있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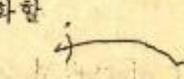
웃을려면 웃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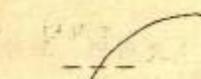
일할려면 일할
수 있고



전화할려면 전화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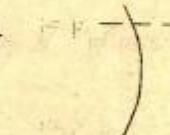
※ 르려면 르수
도 있(으.다)



※ 르려면 르수는
있(으.다)



※ 르려면 르수만
있(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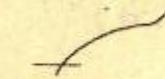


※ 르려면 르수가
있(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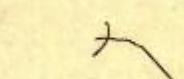


(변화는 "르려면 르수 있(으.다)"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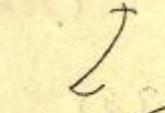
될려면 될수도
있지만



잘려면 잘수는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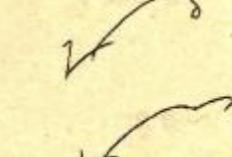
살려면 살수가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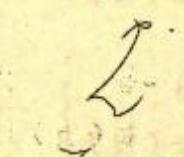
불려면 불수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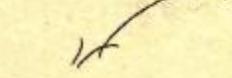
잊을려면 잊을
수도 있는데



울려면 울수가
있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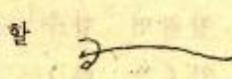
잠을려면 잠을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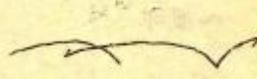
나를려면 나를
수 있는데



상정할려면 상정할
수 있으니



심사할려면 할
수 있어요



제 3 절 규칙약법 및 전문용어 약법

1. 규칙약법 (規則略法)

빈도수가 많은 자를 규칙적으로 약화하여 단어를 구성하는 법
으로서 명사에 국한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도 있다.

가. 2 음자

* 구 ---

기구 / 도구 — 육구 " 촉구 〃

탐구 〃 입구 〃 청구 〃 배구 ↗

농구 〃 갈구 〃 누구 〃 촉구 ↘

* 라·로·리·래 --- ("ㄹ" 받침)

모래 모례 ↗ 조리 ↗ 장래 ↗ 도로 }
도래 ↗ 피로 ↗ 이래 ↗ 미래 } ↗

처리 ↗ 거래 ↗ *원래 ↗ *본래 ↗

*근래 ↗

* 요·효 --- 〃 --- 〃

원이 없는 문자는 자미에 소원을 붙이며 원이 있는 문자는 반대편에 소원을 붙인다.

앞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소원을 붙인 후 받침을 쓴다.

시효 ㄱ 주요 ㅋ 소요 ㅌ 강요 ㅍ

*수효 ㄴ *수효 ㄴ 유효 ㅎ 필요 ㅌ

*길요 ㅓ

* 즉 . 측 . 칙 ㅋ (자중간에서 "ㄱ" 받침)

원칙 ㄱ 규칙 ㅋ 우측 ㅌ 법칙 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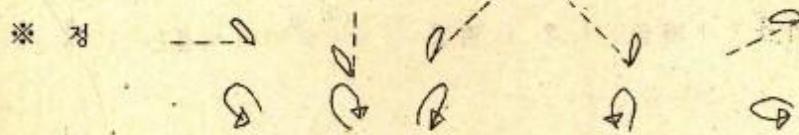
*그런즉 ㄴ 본즉 ㅌ *미국측의 ㅋ *알아본즉 ㅌ

* 년 . 념 . 능 ㅡ ㅡ ㅡ ㅡ ㅡ ㅡ

앞자 자미 (종) 1~2 ㅌ 들어온 위치에서 "ㄴ" 받침을 교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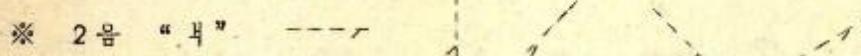
수년 ㄴ 금년 ㅌ 기념 } ㅋ 추년 ㅌ
기능 }

관념 ㅌ 학년 ㅌ 유능 ㅌ 만능 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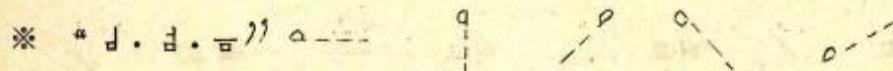
앞자의 자미에 소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미에 3~4 획의 타원을 붙이며 앞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 타원을 붙인 후 받침을 쓴다.

가정	✓	기정	✓	규정	✓	무정	↙
미정	↙	주정	✓	자정	✓	군정	↙
반정	↙	순정	↙	민정	↙	판정	↙
작정	✓	국정	✓	감정	↖	안정	↖



(“||” 위치에서 “ㄱ” 받침)

시채	↗	증액	↙	대채	↗	채택	↘
여객	↗	탄핵	↗	취택	↘	감액	↖



(앞자 자두에 “○” 받침)

-196-

기금 } 자금 9 격침 9 이름 9
기름 }

일임 9 시험 ～ 취임 9 소임 ～

삼엄 ～ 모험 ～ 가슴 9 부임 ～

사임 ～ 해임) 침범 9 마음 }
마침)

※ “남” ～ ～ ～ ～ ～ ～

앞자 자두에 3 ㅌ 대원을 붙이나 앞자 자두에 원이 있는 경우는 안 쓴다.

부담 ～ 포함 ～ 새삼 ～ 재삼 9

고함 9 바람 ～ 측감 ～ 출감 ～

삭감 ～ 면담 ～ 결함 9 격감 9

나. 3 음자

※ “ | 고” 각행의 “ | ” 를 그 방향으로 빼친다.

기고 ～ 니고 ～ 디고 — 라고 ～

미고 ～ 비고 ～ 시고 — 지고 ～

치고 ㄱ 피고 ㄴ 히고 ㅋ)

갈기고 ㅡ/ 따지고 ㅋ 디디고 ㅡ

버리고 ㅓ 떠 미고 ㅓ 비비고 ㅓ

모시고 ㅓ 터지고 ㅌ 편치고 ㅓ

살피고 ㅡ/ 막히고 ㅓ 즐기고 ㅓ

※ “--- 권” --- (초자에 “년”)

선거권 ㅡ/ 우선권 ㅓ 투표권 ㅡ

※ 청구권 ㅓ 목비권 ㅓ 기득권 ㅓ

※ “--- 금” --- (“의” 위치에 “ㄴ” 받침)

기부금 ㅓ 잡부금 ㅓ 교부금 ㅓ

입학금 ㅓ/ 의연금 ㅓ 출자금 ㅓ

예비금 ㅓ 보금 ㅓ 이월금 ㅓ

현상금 ㅓ ※전출금 ㅓ ※전입금 ㅓ

※ “--- 화” --- (초자중간에 “화” 교차)

-198-

공업화	↗	현실화	↗	※ 현대화	↗
근대화	↗	합리화	↗	합리화 ↗	

※ “--- ㅣ” (3 음째 자행 (字行) 의 “ง” 자를 초자 다음에 쓴다)

일찌기	↗	도무지 } 이바지	↗	오로지	↗
여우기	↗	모조리	↗	아버지	↗
어머니	↖	막내기	↗	불가피	↖

※ “--- 간” --- (초자 중간에 “ㄴ” 교차)

벼란간	↗	당분간	↗	하여간	↗
좌우간	↗	의장/연간	↗	불월간	↗
초만간	↗				

다. 4 음자 이하

※ “--- ㅣ” (3 음 “--- ㅣ” 기법의 배 8 mm)

국고관리	↗	유지관리	↗	※하루빨리	↗
※의자관리	↗	※외환관리	↗	※하루속히	↗

※ 하루바삐 ✓ 할아버지 ↗ 아주머니 ~

※ ~놓고 -~-- (초자 중간에 “고”를 교차하다)

멀어놓고 ~ 갖다놓고 ✕ 불려놓고 ↗

※ ~조합 --↗ (초자 (初字) + 읍)

노동조합 ↗ 수리조합 ↗ 소비조합 ↗

※ ~협동조합 --↗ (초자와 “좁”자를 중간교차)

농업협동조합 ↗ 충소기업협동조합 ↗

수산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 ~진홍 --↗

(초자 자미 (종) 1~2 syll 들어온 위치에 “허”를 교차하다)

수출진홍 ↗ 투자진홍 -----↗ 농촌진홍 ↗

※ ~재산 ↗ (초자와 “상+ㄴ”을 중간 교차)

국유재산 ↗ 국공유재산 ↗ 국가재산 ↗

※ ~산업 --~↗

-200-

(초자 자미 (종) 1~2 ㅌ 들어온 위치에 “산업” 교차)

기간산업 수출산업 군수산업

※ ~자금 - - - 0-

(초자 자미 (종) 1~2 ㅌ 들어온 위치에 소원교차)

대중자금 연계자금 상업자금

※ ~가격 - - - (초자와 “ㄱ”을 중간 교차)

주곡가격 하곡가격 판매가격
미곡가격 매상가격 매입가격

※ ~요금 - - - ^ (초자+음)

관영요금 철도요금 공공요금

※ ~계획 - - - (초자와 “계획”을 중간교차)

수급계획 상환계획 신년계획

2. 견문용어 약법

※ 법명 칭약법

중간 자음을 약하며 앞자 중간상 위치가 “법”의 위치가 된다.

정당법



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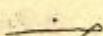
반공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정부조직법



※ 국가보안법



국군조직법



※ 국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예산회계법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국유재산법



※ 도명약법

(초자와 조사 “도”를 중간교차)

*경기도 / (도) 강원도 ㄱ ※충청도 ㅋ

전라도 ㅈ 경상도 ㅊ 제주도 ㅊ

함경도 ㅊ 평안도 ㅌ 황해도 ㅋ

~남도 -----.

(초자 자미 (종) 직하에서 “도”)

충청남도 ㄱ 전라남도 ㅈ 경상남도 ㄴ

함경남도 ㄴ 평안남도 ㄴ

~북도 ㅋ

(초자 자두 직상에서 “도”)

충청북도 ㄱ 전라북도 ㅈ 경상북도 ㄴ

함경북도 ㄴ 평안북도 ㄴ

~남북도

(초자와 “도”를 중간교차)

충청남북도 ㄱ 전라남북도 ㅈ 경상남북도 ㄴ

함경남북도 ㄴ 평안남북도 ㄴ

~시 (위치)

서울시 ☐ 서울특별시 ☐ 부산시 -~

부산직할시 -~

* 국회 각 위원회 기법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 ✓✓ 법사 ✓✓

외무 ✓ ✓

내무 ✓ ✓

재무 ✓ ✓

국방 ✓ ✓

문교공보 ✓ ✓ 문 공 ✓ ✓

농림 ✓ ✓

상공 ✓ ✓

보건사회 ✓ ✓ 보 사 ✓ ✓

교통체신

✓ ✓ 교 체

✓ ✓

건 설

✓ ✓

경제과학

✓ ✓

경 과

✓ ✓

국회운영

✓ ✓ 운 영

✓ ✓

예산결산

✓ ✓ 예 결

✓ ✓

예산결산특별

✗ ✗

상 임

✓ ✓

분 과

✓ ✓

~위원

법제사법위원

✓ : ✓

법사위원

✓ : ✓

외무위원

✓

내무 위원

✓

재무 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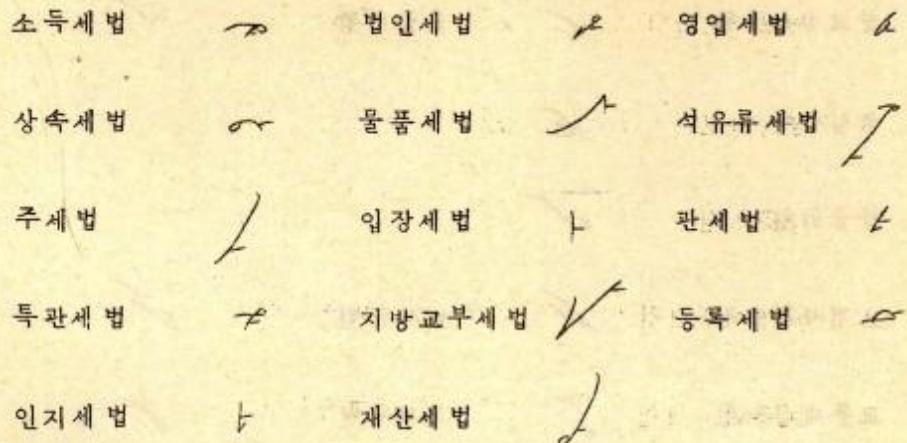
국방위원

✓

문교공보위원	✓	문공위원	✓
농림위원	✓		
상공위원	✓		
보전사회위원	✓	보사위원	✓
교통체신위원	✓	교체위원	✓
건설위원	✓		
경제과학위원	○	경과위원	✓
국회운영위원	✓	운영위원	✓
예산결산위원	✗	예결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	✗		
상임위원	✓		
분과위원	✓		

※ 세법기법

(초자의 “이” 위치에서 “ㅂ” 받침)



〔예문〕

법인체에 부과되는 법인세 법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 ↗ ↗ ↗ ↗

상속세 법등 제세 법은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행정각부 및 장차관 기법

~부 ~부장관 ~부차관 ~장관 ~차관

법무 ↗ ↗ ↗ ↗ ↗

외무 ↗ ↗ ↗ ↗ ↗

내무 ↗ ↗ ↗ ↗ ↗

재무 ↗ ↗ ↗ ↗ ↗

국방 ↗ ↗ ↗ ↗ ↗

문 교	ㅅ	ㅈ	ㅊ	ㅉ	ㅋ
농 립	ㆁ	ㆁ	ㆁ	ㆁ	ㆁ
상 공	ㆁ	ㆁ	ㆁ	ㆁ	ㆁ
보건사회	ㆁ	ㆁ	ㆁ	ㆁ	ㆁ
교 통	ㆁ	ㆁ	ㆁ	ㆁ	ㆁ
전 설	ㆁ	ㆁ	ㆁ	ㆁ	ㆁ
체 신	ㆁ	ㆁ	ㆁ	ㆁ	ㆁ
문화공보부	ㆁ	ㆁ	ㆁ	ㆁ	ㆁ
문 공	ㆁ	ㆁ	ㆁ	ㆁ	ㆁ
보 사	ㆁ	ㆁ	ㆁ	ㆁ	ㆁ

~장판

~차판

경제기획원	○	ㆁ	ㆁ
기획원	○	ㆁ	ㆁ
과학기술처	ㆁ	ㆁ	ㆁ

총무처

ㄱ

ㄱ

ㄱ

국토통일원

ㄱ

ㄱ

ㄱ

통일원

ㄱ

ㄱ

ㄱ

~국장

---/

(자미 2 ~~을~~ 교차하여 “국”)

~과장

---/

(자미 2 ~~을~~ 교차하여 “과”)

* 처 · 청기법

~처

---/

(초자+처)

국회사무처

/

법원행정처

ㄱ

법제처

ㄱ

원호처

ㄱ

~청

---/

(초자+청)

전매청

ㄱ

국세청

/

노동청

ㄱ

대검찰청

ㄱ

수산청

ㄱ

철도청

ㄱ

조달청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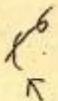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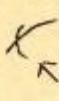


~원

감사원



감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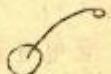


※ 기타

경제과학심의회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



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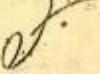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민사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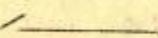
형사지방법원



※ 특별회계 명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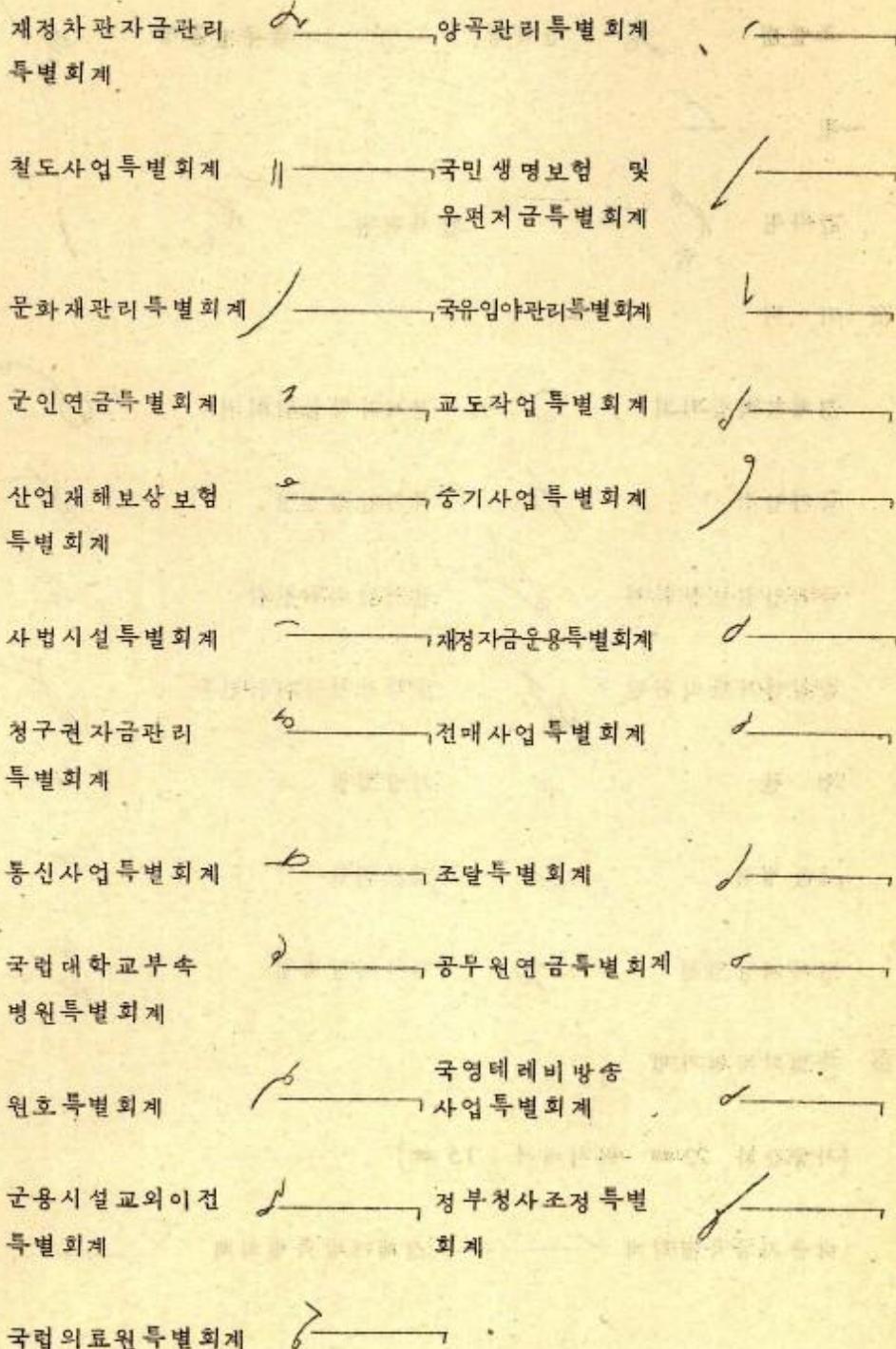
(자중간하 2 ■■ 위치에서 15 ■■)

대충자금특별회계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문』

예 산 편 성 에 는 일 반 회 계 와 특 별 회 계 가 있 는 에 特 別 회 계
중 에 는 대 충 자 금 특 별 회 계 경 제 개 발 특 별 회 계 등 많 은 特 別 회
계 가 있 다 .

헌 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국민은 3·1 운

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

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

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